

희망 나눔 행복 찾기

| 2015 중랑구 통합사례관리 활동집 |



CONTENTS

I 통합사례관리사업 안내

- 6 통합사례관리사업 안내
- 7 통합사례관리사업 추진 현황

II 공동사례 이야기

- 10 공동사례관리 수록 취지
- 11 엄마! 아빠! 부재중 중랑구청 | 중랑교육복지센터
- 20 끝나지 않은 희망 중랑구청 | 중랑구정신건강증진센터

III 행복찾은 우수사례 이야기

- 28 마침 또 다른 시작 중랑구청 | 김춘선
- 33 빛나는 내일을 향해 나아가기 면목종합사회복지관 | 신보경
- 40 가족과 이웃이 함께한 독거 어르신 사례관리 서울시립대학교종합사회복지관 | 홍한울
- 45 세상 밖으로 구립신내노인종합복지관 | 신혜영
- 48 무기력한 삶에서 다시 희망을 신내종합사회복지관 | 이승환
- 53 9남매의 러브하우스 원광장애인종합복지관 | 이보람
- 58 함께 하는 삶 유린원광종합사회복지관 | 장동길
- 62 심리, 경제적 문제를 가진 환자에 대한 지역사회와의 협력 북부병원 | 김준희
- 67 희망을 전하는 손길 서울시립대학교종합사회복지관 | 홍한울

CONTENTS

IV 희망수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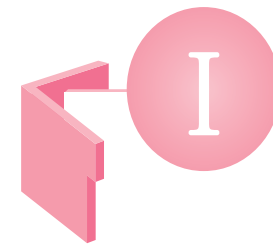
- 72 가족이 함께 행복을 만들고 나눔을 실천하다 ... 중랑구건강가정지원센터 | 맹영숙(가족봉사단)
- 74 봄이 오다... 면목4동 주민센터 | 김민중
- 77 변화의 시작 : 접촉의 '횃수' 그리고 관심의 '깊이' 상봉1동 주민센터 | 한민정
- 81 움츠렸던 어깨에 희망의 날개를 신내종합사회복지관 | 이승환
- 84 중랑구 거주 네팔자진피해자가가족 지원을 위한 긴급모금활동 중랑구다문화가족지원센터 | 배지숙
- 87 허리펴고 기지개 켜!! 면목종합사회복지관 | 김정연

V 희망의 메아리

VI 부록

- 98 맞춤형 복지 안내
- 103 긴급복지지원 안내
- 104 중랑구 사회복지협의체 사례관리분과 소개





통합사례관리사업 안내

- ① 통합사례관리사업 안내
- ② 통합사례관리사업 추진현황



통합사례관리사업 안내

1. 통합사례관리사업이란 ?

지역사회 공공·민간자원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지원체계를 토대로 복합적이고 다양한 욕구를 가진 대상자에게 복지·보건·고용·주거·교육·신용·법률 등 필요한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연계·제공하고, 이를 지속적으로 상담·모니터링 해나가는 사업

2. 통합사례관리사업 대상은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계층, 긴급지원대상자 및 복지사각 지대에 놓여 있는 대상자로서 지속적이고 복합적인 욕구를 가진 가구

3.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나요 ?

통합사례관리사가 사례지원가구의 욕구를 파악하여 위기를 극복하고 자립의 토대를 마련할 수 있는 서비스 - 경제, 의료, 주거(주거환경개선), 교육, 전문상담 - 등을 연계·제공

4. 어떻게 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나요 ?

도움이 필요한 주민이 직접 또는 어려운 상황에 처한 가구를 알고 계신 주민이 동 주민센터에 전화 또는 방문하여 신청

통합사례관리사업 추진 현황

1. 중랑구 복지대상자 현황

(기준일 : 2015. 6. 30, 단위 : 명)

총계	기초생활수급자	영유아	한부모	기초연금	장애연금	장애수당
72,271	10,039	16,640	6,384	33,938	2,403	2,867

2. 사례관리사업 추진 현황 (2014. 7. 1 ~ 2015. 6. 30)

1) 통합사례관리 추진 현황 (단위 : 가구/명)

계		선정		서비스연계대상자	
가구	인원	가구	인원	가구	인원
167	360	87	196	80	164

2) 통합사례대상자별 세부현황

가. 보호 구분 (단위 : 가구/명)

계		기초생활 수급자		한부모 가구		차상위계층 가구		저소득 가구	
가구	인원	가구	인원	가구	인원	가구	인원	가구	인원
167	360	62	115	15	47	21	51	68	147

통합사례관리사업 추진 현황

나. 가구 유형

(단위 : 가구)

계	한부모	독거노인	노인부부	조손가정	부부중심	청장년단독	장애	기타
167	33	28	4	4	20	56	11	12

다. 가구 구성원

(단위 : 가구)

계	1인	2인	3인	4인	5인 이상
167	80	33	26	17	11

라. 가구 주요 욕구

(단위 : 건, 누계)

계	안전	건강	일상 생활 유지	가족 관계	사회적 관계	경제	교육	고용	생활 환경	법률 및 권익 보장	기타
441	11	117	63	11	2	162	28	18	19	7	3

마. 서비스연계(지원별) 내역

(단위 : 건, 천원)

계		법정지원		지자체지원		민간후원	
건	금액	건		건	금액	건	금액
562	330,126	74		98	45,442	390	284,684

Ⅱ 공동사례 이야기

- 1 공동사례관리 수록 취지
- 2 엄마! 아빠! 부재중 | 중랑구청 중랑교육복지센터
- 3 끝나지 않은 희망 | 중랑구정신건강증진센터

엄마! 아빠! 부재 중

중랑구복지정책과 | 조 향 선
중랑교육복지센터 | 최 선 아

공동사례관리 수록취지

지역기관별 사례관리에 대한

이해의 차이, 상이한 수행 방식 등을 인정하고 이해하며

‘통합사례관리’라는 기본 방향을 공유하고자 노력하였다.

그 과정에서 지역기관간 서로에게 단순한 서비스연계기관으로서가 아닌

지역사회 협력체계로 사례관리대상자의

의뢰 경로, 사례관점, 개입목표, 진행과정, 성과 도출에 대한

전반적 협력 및 문제해결과정을 보여 주고자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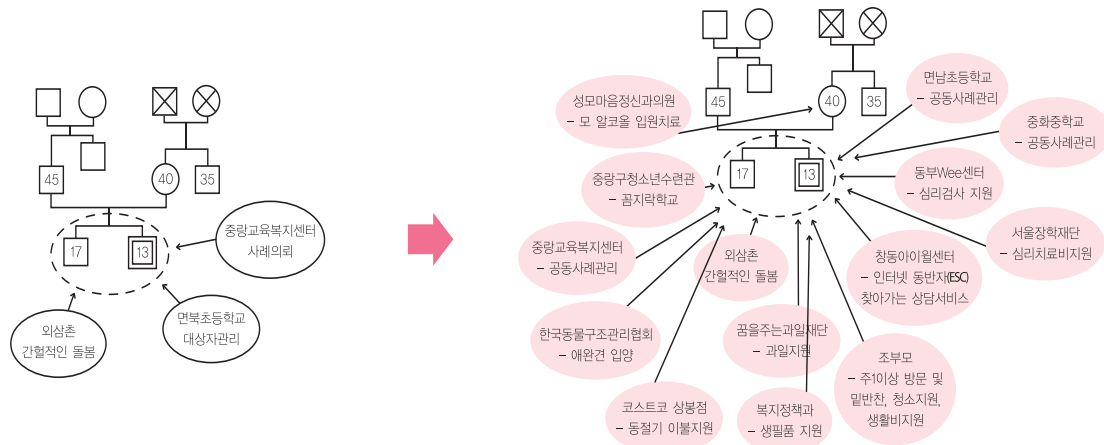
■ 사례개요

대상자명	김철수(가명)	성별/나이	남 / 13세	보장구분	일반
주거형태	자가	가구유형	부부중심	가구원수	4인
건강상태	게임과몰입	월소득	0원 (작은 아버지의 간헐적인 용돈지원)		

■ 사례목표

주요문제	• 부모 부재로 보호자 없이 미성년자 자녀들만 생활 중 • 식사해결 및 기초생활유지의 어려움 • 형 학업중단 후 집안에서 은둔생활 • 게임과몰입으로 결석과 지각이 많아 초등학교 유예 위기 • 소득원 부재로 경제적 어려움 • 집안 내 반려견의 분변과 악취로 주거환경 문제 심각
단기목표	• 밀반찬지원을 통한 식사해결 도움 • 학업중단에 따라 학교 밖 프로그램 연계하여 지속적인 학업유지 • 게임과몰입에 대한 심리검사 및 상담지원으로 게임시간 2시간이상 단축 • 후원금 · 품 3회이상 지원하여 경제적 어려움 감소 • 지역사회기관들과의 공동사례관리를 실시하여 주1회이상 모니터링을 통해 안정적인 학교 및 가정생활 유지 • 한국동물구조관리협회 입양지원하여 반려견으로 인한 비위생적인 주거환경개선
장기목표	• 친인척에게 가족역할 부여하여 부모 양육 전까지 안전한 보호 및 일상생활 유지

■ 생태도의 변화



I. 프롤로그

[중랑교육복지센터]

철수(가명)와의 인연은 1:1 맞춤코칭 사업에서 담임선생님의 추천 의뢰로 발굴되었다.
 부는 현재 마약사범, 모는 정신병원에 입원한 상태여서 아이들을 돌볼 수 있는 어른이 부재한 상태였고, 정부지원 대상이 아니며, 보이지 않는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다.
 철수가 게임중독이 심한 것도 이러한 이유로 보여졌고, 학교 결석으로 이어지는 것까지 그러한 결과가 아닐까 생각되었다. 주양육자가 없는 상황에서 복합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고, 현재의 위기상황이 걱정되어 중랑구청 희망복지지원단에 사례관리를 의뢰하여 힘을 모으기로 하였다.

[중랑구청]

철수가 구청 희망복지지원팀에 의뢰 당시 아버지는 수감 중이고 어머니는 알코올의존으로 정신병원 입원하여 초등학교 6학년 철수와 고등학생인 형 단둘이 집에서 생활하여 식사해결이 잘 되지 않고 있었다. 또한 늦은 시간까지 컴퓨터 게임을 하다 보니 아침에 일어나지 못해 결석과 지각이 잦아

초등학교도 유예처분 우려가 높은 상황이라고 했다. 철수네를 돌봐주고 있는 작은아버지가 인근 지역에 거주하며 경제적인 도움을 주고 있지만, 부모 부재로 인한 여러 복합적인 문제가 있어 사례관리가 의뢰되었고, 철수가구를 어떻게 도울지에 대한 고민이 이루어졌다.

II. 공동사례과정

[중랑교육복지센터]

■ 숨어있는 위기의 사각지대

교육복지센터는 정부의 지원을 받는 아이들 이외에도 긴급한 상황에 처한 사각지대 아이에 대한 사례관리를 접하는 경우가 빈번하다.

처음 가정방문을 가는 날 철수를 만나기가 너무 어려웠다. 처음 가정방문을 하였을 때 초반에는 개 짖는 소리가 굉장히 심하였고 집 앞은 전단지와 쓰레기로 널브러져있어 들어갈 엄두조차 나지 않았다. 작은아버지가 유일한 연락체계였으나 작은아버지조차 지방으로 출장을 간 상황이었고 실질적인 주 양육자는 없는 상태였다. 아이들조차 휴대폰이 끊기고 집 전화 또한 끊긴 상태여서 연락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

수차례 가정방문이 이루어졌으나 허탕을 치고 작은 아버지를 설득한 끝에 외삼촌이 아래층에 거주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 안심하게 되었고 희망복지지원단 통합사례관리사 선생님과 함께 외삼촌을 찾아가기로 하였다.

처음 본 외삼촌과의 만남은 굉장히 두려웠다. 아이들 집 바로 아래층에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문을 잘 열어주지 않을뿐더러 아이들에 대한 관심이 없는 듯 해 보였다. 하지만 걱정과 달리 아이들 어머니인 누나에 대한 이야기를 허심탄회하게 풀어내었고 아이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였다. 철수뿐만 아니라 형도 함께 거주하고 있으며 ○○공업고등학교를 다니다가 자퇴를 한 상황이고 집에서 게임만 하는 상태라고 하였다. 철수의 게임을 제지하지 못하는 것도 형의 영향을

받는 것이 아닌 가 의심이 되었다.

외삼촌 본인도 아이들에게 음식도 가끔 해주고 싶고 아이들이 학교를 잘 갔으면 하는 바람이 있다고 하였다. 다행히 외삼촌에게 희망이 보였고 이후에 아이들을 만날 수 있도록 부탁드리고 다음 약속 날짜를 정하였다.

■ 명확한 역할분담을 통한 통합사례관리

아이들이 음식을 잘 먹지 못하는 부분에 있어서 지원을 해줄 수 있는 방향에 대하여 고민하다가 동부교육지원청 수호천사단(자원봉사단)과 함께하는 밑반찬 서비스 사업과 연계하여 자연스럽게 가정방문 하는 방안을 생각해보았다. 정성스럽게 만든 자원봉사단 선생님들의 반찬을 보며 아이들은 집밥에 대한 그리움을 나타내었고 아이들의 이야기 또한 자연스럽게 이어나갈 수 있었다.

집안에는 몇 달을 씻기지 않은 듯한 개 2마리가 심하게 짖어대었고 냄새 또한 코를 찔렀다. 아이들은 개 2마리를 키우기에는 어려운 상황이었고 집안은 빨지 않은 이불들과 설거지더미가 쌓여있었고 건강이 의심되는 상황이었다.

희망복지지원단 통합사례관리사 선생님과의 협의를 통해 철수가정의 현재 상황에 대하여 파악하고 지원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 각 기관의 역할분담이 시작되었다.

철수의 학교의 출결상황과 심리검사의뢰, 통합사례회의 주관, 밑반찬 서비스 부분에 대해서는 교육복지센터가 맡고, 주거환경개선, 형의 대안학교 연계 등 가구의 전반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희망복지지원단에서 맡아 지속적인 사례회의를 통한 통합사례관리가 진행되었다.

[중량구청]

■ 보호자 부재의 흔적

철수네 집을 센터와 함께 방문을 갔을 때 우리를 가장 먼저 맞이해준 것은 독촉고지서와 공과금 고지서로 가득 차 더 이상 우편물을 넣을 수 없는 우편함이었다. 비에 젖었다 말려진 것이 여러차례인지 조금조금해져 두껍게 바뀐 종이들과 색이 발한 우편물들! 그리고 입구부터 2층으로 올라가는 계단에는 각종 전단지들이 너저분하게 흩어져서 전혀 관리의 손길이 느껴지지 않았다.

2층 입구에 도착해서 철수를 불러보았지만, 인기척이 전혀 느껴지지 않았고 살기가 느껴지는 개 짖는 소리만 집안에 생명체가 존재함을 알게 했다. 그 동안 센터에서는 여러 차례 방문을 하였으나, 매번 만나지도 못하고 돌아갔던 상황이었고, 구청의 첫 방문시에도 마찬가지로 철수를 비롯한 사람과의 만남을 실패하였다.

이후 외삼촌이 아래층 거주하고 있고 카톡으로 연락이 가능하다하여 외삼촌을 통해 철수 형제와의 만남을 시도하게 되었다. 집안에 문이 열렸으나 선뜻 발걸음이 띄어지지 않을 정도로 악취가 심했고, 여기저기 누런 이불들이 펼쳐져 있고 개 분변들이 이불의 장식품처럼 놓여 있었다. 개들 또한 철수형제처럼 돌봄의 손길이 전혀 없었는지 윤기 없어 덩수룩하게 뭉쳐진 털은 오히려 철수 형제의 건강까지 위협할 수 있어 분리가 필요할 것으로 보여 졌다.

외삼촌이 아랫집에 생활하고 있어 하루에 한번정도 집을 들여다본다고 하였으나, 악취와 지저분한 집안환경, 까칠까칠해 보이는 혈색, 머리는 언제 깎았는지 길어져서 야생소년의 모습이 느껴질 정도로 돌봄의 흔적은 찾을 수 없었다.

형은 고등학교 1학년을 다니다 중퇴하고 집에서 대부분의 시간을 컴퓨터게임을 하며 은둔생활을 하고 있었다. 철수는 초등학교 6학년이었지만, 왜소한 체격과 어려보이는 얼굴은 초등학교 3~4학년이라고 얘기를 해도 믿을 정도였다.

열악한 주거환경, 보호자 부재, 경제적 어려움, 학업중단, 게임과몰입으로 교육복지센터와 통합사례관리를 통해 현재의 위기상황을 돕고자 하였다.

■ 반려견과의 이별

철수 가정에서 가장 시급한 것은 반려견을 보내는 일이었다. 형제들만도 일상생활유지가 되지 않아 청결문제가 심각한데, 대소변을 가리지 못해 집안 곳곳에 분변을 보고 있고, 오히려 형제들의 건강을 위협하는 상황에서, 목욕 및 예방접종 등 관리가 되지 않아 야생적으로 변해가는 반려견을 형제들도 더 이상 키우기 부담스러워하였다. 하지만, 유기견도 아닌 반려견을 어디로 보낼 수 있을지 고민 끝에 동물병원, 애완견센터 등을 알아보았으나 모두 거절당했다. 이후 철수네 가정의 딱한 사정을 듣고 한국동물구조관리협회와 유기견을 접수하는 구청 담당자와 협의하여 반려견 2마리를 모두 보낼 수 있었다.

형제들은 키워왔던 반려견과의 이별이라 슬퍼할 법도 한데 그 동안 개로 인해 많이 힘들었던지 오히려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듯 편안해하는 모습이었다. 이후 외삼촌에게 부탁하여 집안 대청소를 할 수 있도록 요청하였고, 다시 찾았던 집은 악취는 사라지고 이불 빨래를 했는지 향긋한 섬유유연제 냄새가 풍겼다.

■ 안정적인 치료지원

작은아버지가 필요할 때마다 외삼촌을 통해 생활비를 도와주고 있었으나, 정기적인 지원이 아니었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었다. 부가 출소하고 모가 정신병원에서 퇴원할 때 까지 만이라도 수급자로 책정하여 법정보호를 받을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으나, 2층 다세대 주택을 자가로 소유하고 있고, 조부모가 부양능력이 있어 공적부조를 통한 도움에는 한계가 있었다. 하지만, 모가 정신병원 입·퇴원을 반복하고 있어 지속적인 치료가 요구되었고, 형제들은 미성년자로 건강문제 발생 시 병원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의료비 경감을 받을 수 있는『차상위본인 부담경감』으로 책정하여 모와 형제들이 안정적인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 게임과몰입(過沒入) 극복하기

철수는 초등학교 5학년 때부터 잦은 결석이 이루어지고 있었고 6학년 2학기에 들어서는 학교를 거의 나오고 있지 않아 유예처리의 위기상황이었다. 이는 형이 고등학교 중퇴 후 집에서 지내고 있다보니 늦은 시간까지 함께 컴퓨터게임을 하고 새벽에 잠이 들어 아침에 등교를 못하는 것이 반복되는 상황이었다. 또한 철수와 상담 시 하루 평균 7시간 이상을 핸드폰과 컴퓨터게임, OOTV를 보며 지내고 있었고 “게임 없이는 못 살 것 같아요!”라며 게임과몰입 문제가 심각하여 교육복지센터와 협의하여 동부Wee센터에서 심리검사를 실시하였고, 그 결과 상담이 요구되는 상황이었다.

다행히 그 시점 모가 병원에서 퇴원하여 집에 있었고, 자녀들을 챙겨보겠다고 하여 모에게 철수의 상담동행을 부탁하였다. 하지만, 알코올문제가 있던 모는 퇴원 후 시간이 지나면서 다시 술을 마시기 시작했고 상담치료가 중단되었다.

철수를 혼자서라도 가도록 권유하고자 하였으나 학교도 결석 및 지각하는 철수가 스스로 상담을 받기위해 센터로 간다는 것은 기대하기 힘든 상황이었다. 그래서 여러 기관을 찾은 끝에 인터넷중독예방치료센터인 ‘창동아이월센터’ 『인터넷 동반자(ESC) 찾아가는 상담서비스』를 연계하였다. 그로 인해 철수는 학교에서 인터넷전문상담가와 주1회 상담이 이루어지고 있고, 조금씩 게임을 조절할 수 있게 되면서 결석 및 지각 횟수가 많이 줄어들어 학교생활도 안정을 찾아가고 있다.

■ 이제 학교가요!

형 준수는 00공업고등학교에 입학하였으나 학교부적응으로 1학년도 마치지 못하고 학업을 중단 후 낮에는 잠을 자고, 밤에는 게임을 하며 생활리듬이 뒤바뀐 삶을 보내고 있었다. ‘상담을 거부하면 어쩌지?’ 우려하였으나 예상과는 다르게 아주 착하고, 예의가 바른 아이였다. 그동안 학교도 가지 않고 집안에서 게임만 하다보니 이 생활도 많이 무료해졌는지 학교 밖 프로그램에 대해 안내했을 때 참여를 하고 싶다는 선뜻 대답을 해줬고, 준수를 위한 프로그램이 어떤 것이 있을지 찾아보았다. 다양한 프로그램을 안내하였으나, 중단된 학업을 유지하기 위해 검정고시도 준비하고, 직업체험도 할 수 있는 도시형대안학교에 입학하였고, 생활리듬이 뒤바뀌었던 준수는 입학시점을 일주일 늦추어 그동안 밤에 잠을 자고 아침에 눈을 뜰 수 있도록 스스로 연습을 한 후 가겠다고 의지를 보였다. 대안학교를 다니면서 초기에는 결석과 지각 등이 발생되기도 하였으나, 대안학교와 지속적으로 정보를 공유하여 참여를 유도한 결과 안정적으로 학업을 유지해 나가고 있다.

III. 에필로그

[중랑교육복지센터]

초등학교를 무사히 졸업하고 중학생이 되면서 지금은 ○○중학교에서 지속적인 사례관리가 이루어지고 있다. 철수가 교육복지특별지원사업에 연계된 학교로 입학하여 교내에 지역사회교육 전문가의 사례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다행인지 모르겠다.

사례를 위임하기 전 마지막 가정방문 시 “선생님 커피 타 드릴까요? 선생님 보고 싶었어요!”라며 웃으며 이야기 하는 철수와 형의 수줍어하는 웃음과 “선생님 감사해요.” 라고 말하는 아이들의 표정을 보면서 내 마음도 울컥했다.

우리가 만나는 아이들이 조금 더 열악한 상황이었으면 어땠을까! 그랬다면 오히려 우리가 포기하지는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해보지만, 여러 기관들이 함께 도울 수 있어서 포기가 아닌 가능성으로 나아갈 수 있었던 것 같다. 또한 눈앞에 보이지 않는 안개 속 같은 상황에서도 통합사례회의를 통한 줄기의 빛을 찾아가고 그것을 통해 아이들이 웃음을 되찾아 가는 모습에 뿌듯함을 느낀다.

부모가 없는 상황에서도 서로 의지하며 챙기는 형제! 지금의 위기상황에서 벗어나고 싶어 하는 의지가 있는 형제! 요리사, 검정고시를 통한 학업유지에 대한 꿈을 이루고자 노력하려는 형제!들의 모습에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싶다.

[중량구청]

철수가정은 주변에 외삼촌과 작은아버지, 조부모가 있었음에도 누구 한명이 제대로 양육하지 않고 간헐적인 도움만 주다보니 미성년자인 형제들 스스로 생활을 유지해야했다. 그렇다보니 식사는 거를 때가 많았고, 식사를 하더라도 간단하게 배를 채울 수 있는 것으로 해결하기 위해 세끼를 라면으로 때우다 보니 지금은 먹고 싶지 않은 음식이 라면이라고 얘기를 한다. 제대로 된 식사를 못해 또래 아이들에 비해 체격이 왜소했고, 경제적으로 어려워 비행청소년들과도 어울릴 수 있는 가정환경이었으나, 심성이 착했던 형제는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비행이라는 일탈 없이 생활할 수 있었던 것 같다.

그리고 사례관리과정이 모두 순탄하게만 이루어지지는 않았다. 형제들이 안정을 찾아 종결을 앞두고 있을 때 쯤 모가 퇴원하게 되면서 술 문제를 일으켜 형제들이 어머니를 돌보기 위해 학교도 가지 못하고 돌아가며 문 앞에서 보초를 서는 상황이 발생되면서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는가 싶었으나, 다행히 모 설득 끝에 다시 입원치료를 받기로 하였고, 이는 형제를 위한 모의 선택이었다. 이제 철수는 게임과몰입에서 조금씩 벗어나려하고 있고, 형 준수는 대안학교를 다니며 자신의 미래를 준비해나가고 있다. 또한 부모가 가정으로 돌아올 때 까지 조모에게 역할을 부여하여 주1~2회씩 가정방문하여 밀반찬지원과 청소 등 형제들을 챙겨볼 수 있도록 하여 챙겨볼 수 있도록 하고 있다.

IV. 종합의견

그 동안 만나왔던 수급가정, 차상위가정과는 다르게 집은 자가를 소유하고 있고, 주변에 친인척들이 조금씩 도움을 주고 있으며, 학교에서는 잦은 결석과 지각 외에는 문제행동을 보이지 않고, 비행을 일으키지도 않는데 굳이 사례관리를 해서 도움을 주어야하는 것인가? 하는 고민을 잠시 할 수도 있는 가구일 수 있다. 이러한 이유로 사례관리 미선정 되었다면? 그래서 수면위로 떠오르지 않았다면? 이 형제들은 어떻게 되었을까! 우리가 사례관리를 한다고 하지만, 개인적인 판단으로 대상자를 바라보고 이러한 선택으로 사례관리가 이루어지면서 우리의 관점과 역할이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그 책임감에 더욱 마음이 무거워진다.

어쩌면 철수의 가정이야말로 위의 이유로 사각지대에 놓여 질 수도 있는 상황에서 담임선생님의 관심이 있었고, 이것을 지역사회기관들이 공동사례관리를 진행하면서 통합사례회의를 통해 지원방안에 대해 함께 논의하고 역할을 나눔으로써 이 형제들이 부모 부재한 상황에서 안전하게 지역사회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다.

끝나지 않은 희망

중랑구 복지정책과 | 정 의 만
중랑구정신건강증진센터 | 선 나 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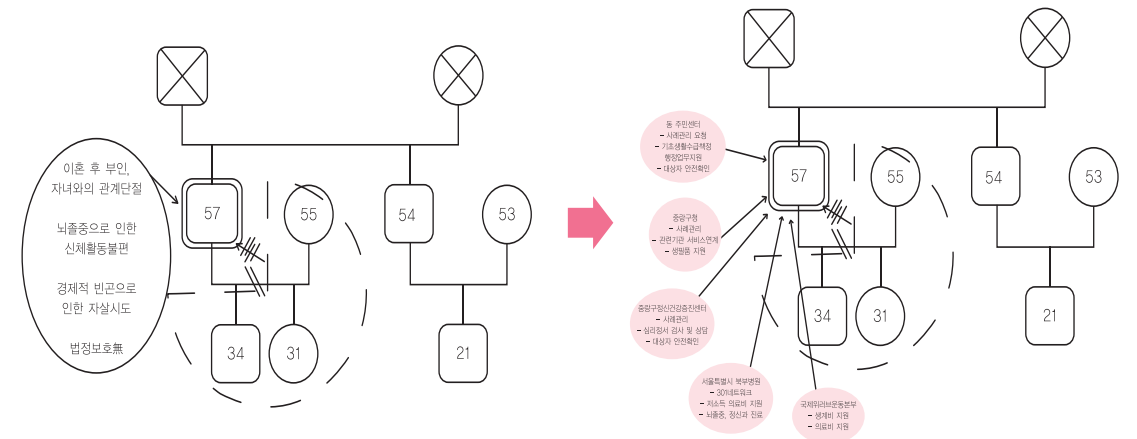
■ 사례개요

대상자명	조인성(가명)	성별/나이	남 / 58세	보장구분	일반
주거형태	월세	가구유형	청장년1인	가구원수	1인
건강상태	뇌졸중, 자살	월소득	무		

■ 사례목표

주요문제	• 뇌졸중으로 인한 의료비 지출에 대한 부담 • 임대료 체납으로 인한 퇴거위기 • 건강악화와 경제적 빈곤으로 삶의 희망을 잃어 자살 시도
단기목표	• 의료비 및 진료에 필요한 부대비용을 지원하여 대상자가 금전적 문제로 진료를 받지 못하는 상황 방지 • 경제적 빈곤으로부터 발생한 정서적 불안감을 해소할 수 있도록 체납공과금 및 주거비 지원 • 경제적 지원과 더불어 대상자의 심리정서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상담 및 정신과 진료를 통해 자살 재시도 예방
장기목표	• 대상자가 사례관리를 통해 나아진 신체적, 정신적 건강을 유지할 수 있는 장치 마련하도록 함. 경제적 빈곤으로 인한 자살시도를 예방 및 자립기반 조성

■ 생태도의 변화



I. 프롤로그

[중랑구청]

상봉2동 주민센터와 보건복지부 콜센터 129번에서 이관되어 접수된 사례로 뇌졸중으로 신체 활동 불편과 경제적 어려움으로 자살에 대한 충동을 가지고 있는 위험사례로 요청이 들어와 중랑구정신건강증진센터 담당자와 함께 동행방문하게 되었다.

[중랑구정신건강증진센터]

상봉2동 주민센터에서 의뢰된 김씨는 이웃들의 관심으로 알게 된 대상자였다. 김씨는 뇌졸중으로 거동이 불편하고 언어능력이 저하되어 의사소통에도 문제가 있었으며, 위생관리 등의 기본적인 일상생활에도 어려움이 있었다.

1년 동안, 생활고와 건강문제를 비관하여 3차례의 자살시도를 하였다. 이러한 문제에 대한 치료적 개입, 생활 전반에 대한 개입이 필요하여 공동사례관리를 시작하게 되었다.

II. 공동사례관리과정

[중랑구청]

■ 삶의 희망이란?

사례접수를 받고 중랑구정신건강증진센터 실무자와 함께 방문하여 대상자의 사연을 듣게 되었다.

대상자는 결혼을 하여 자녀가 있지만 사업실패로 인한 가정불화로 이혼을 하게 되었고 자녀들을 양육함에 있어 경제적 지원을 하지 못해 자녀들과의 사이도 점차 멀어지게 되었다. 대상자는 홀로 공사장등지에서 일을 하며 생계를 이어갔지만 경제적 어려움은 좀처럼 나아지지 않았고 건강까지 나빠지게 되면서 삶의 희망을 찾지 못해 힘들어 하였다.

대상자는 뇌졸중으로 인해 말을 잘하지 못하고 인지속도도 늦었으며 화장실을 이용하는데 많은 시간이 소요될 만큼 신체적 건강이 좋지 못하였다. 신체적 건강이 악화되자 대상자는 삶의 희망을 찾지 못해 총 3번의 자살시도를 하였고 다행히 주변 사람들이 일찍 발견하여 최악의 상황은 모면하게 되었다. 정서적 불안감으로 하루하루 살던 대상자는 살고 있던 집의 월세비용을 체납하게 되면서 임대인으로부터 퇴거요청을 받아 더욱 낙담하게 되었고 마지막 심정으로 동주민센터와 보건복지부에 연락을 하여 도움을 요청하였다.

대상자와의 힘든 과거 이야기를 들으면서 중랑구정신건강증진센터와 중랑구청의 역할은 분명하게 알 수 있게 되었다. 대상자는 경제적 어려움과 본인의 신체적 질병으로인해 삶의 희망을 찾지 못해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된 것을 알게 되었고 그에게 조그마한 삶의 희망을 줄 수 있다면 충분히 현 위기상황을 극복해 현명한 삶의 유지할 수 있을거라 판단되어졌다.

중랑구정신건강증진센터에서는 자살예방을 위한 집중사례관리를 시작하여 면밀한 검사 및 상담을 통해 대상자의 심리적 상태를 체크하고 불안감등을 완화시키기 위한 서비스를 진행하였으며 동 주민센터에서는 기초생활수급 책정을 위한 행정업무를 보조해 주기로 하였다. 중랑구청에서는 대상자의 신체적 건강을 호전시키기 위한 병원 및 의료비지원을 시작으로 대상자의 경제적

어려움을 완화시키기 위한 생계비 및 생필품 지원을 동시에 진행하였다.

가정방문시 마다 대상자는 말씀을 참 많이 했다. 그동안 홀로 생활을 하면서 누군가 이렇게 자신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것이 처음이라고 했다. 그리고 자신을 도와 이렇게 수고를 하는 각 기관 실무자에게 매우 감사해 했다. 본인은 아무것도 몰라서 법정보호나 민간사회복지서비스를 알아보지 못하였는데 누군가 나서서 본인의 어려움 이야기를 들어주고 도와주는 것에 큰 감동을 받는다고 하였다.

대상자는 정신보건, 의료, 생계 및 각 행정업무 보조등을 도움 받으면서 점차 생활의 안정을 되찾아갔으며 특히 기초생활수급자로서 보호를 받는 것이 본인에게 큰 안정감을 찾아 주었다고 한다.

[중랑구정신건강증진센터]

■ 외로움과의 싸움

2014년 8월, 대상자는 뇌졸중으로 쓰러져 이틀 만에 동생에게 발견되었다. 동생도 대상자를 돌보아줄 형편이 되지 못해 퇴원 후 지속적인 치료가 이루어지지 못했다. 김씨는 병이 생긴 후 대인관계가 단절되면서 우울감이 높아졌다. 이후 자신의 주변에 아무도 없다는 생각으로 세상에 대한 배신감으로 세 차례의 자살시도 후에 도움의 울타리 안으로 들어올 수 있었다.

■ 변화와 희망의 시작

신체적, 경제적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 괴로웠지만 강한 자존심으로 도움을 거절했던 김씨가 꾸준히 찾아가 손을 내밀던 사례관리자에게 조금씩 마음을 열기 시작하였다. 치료가 시작되면서 김씨의 동생도 김씨의 위험성을 인정하고 치료 과정에 도움을 주기로 약속하였다.

서울특별시 북부병원 301네트워크를 통해 정신과 치료가 시작되었다.

김씨는 죽고 싶은 생각에서 삶에 대한 의지로 생각을 바꾸는 과정을 힘들어 했지만 지속적인 사례관리자의 지지로 살고자 하는 의지는 갖게 되었고, 먼저 사례관리자를 찾는 모습을 보이기도 하였다. 생각을 바꾸는 과정을 힘들어 했지만 지속적인 사례담당자의 지지와 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되어 경제적인 지원을 받게 되면서 “마음먹기에 따라 다르고, 살아야겠다는 생각이 든다.”며 삶에 대한 의욕을 표현하게 되었다.

III. 에필로그

[중랑구청]

집중적인 사례관리 기간이 지나고 방문 횟수나 의사소통의 기회가 줄어들면 다시금 정서적 불안감이 찾아오지 않을까?란 걱정으로 대상자의 집에 잠시나마 정기적인 방문이 이루어질 수 있는 서비스 연계를 찾아보았다. 희망꾸러미란 생필품 지원을 통해 월1회 가정방문의 이유를 만들고 대상자의 집에 정기적으로 방문을 하였다. 건강이 완치되진 않았지만 점차 건강이 호전되고 있어 의사소통도 전보다 수월해져 있었다. 특히 대상자가 병원을 이용하는데 있어 의료비 부담을 없애 그로인한 스트레스를 줄여 오로지 건강호전에 집중할 수 있게 한 결과인 것 같다. 또한 생계비 지원을 통한 주거지 이전으로 주거의 불안정을 해소함과 생계안정은 그에게 정서적 안정감을 되찾아주기에 충분해 보였다.

[중랑구정신건강증진센터]

자살은 인생의 난관 앞에 어떻게 해야 할지 방법을 찾지 못할 때, 선택하게 되는 가장 극단적인 방법이다. 사람들은 자살을 선택한 사람들에 대해 "약해서 그래."라고 쉽게 말하지만, 사람은 누구나 약해질 수 있다. 그리고 약해진 그 사람에게 손을 내밀어야 하는 존재가 바로 “사회”여야 한다.

어린이들은 넘어지면 엄마가 달려와서 일으켜준다. 우리가 넘어지면 가족들, 친구들이 달려와서 도와준다. 하지만 엄마가, 가족과 친구가 없을 때는 사회가 일으켜 세워줘야 한다.

그것이 개인이 사회에 행한 공헌에 대한 화답인 것이다.

누구나 인생에서 실패를 경험 할 수 있고, 그런 실패를 딛고 일어서서 다음 실패를 향해 도전하는 것이 인생이지만, 반복적인 실패로 무릎 꿇은 채 더 이상 일어나지 못 하는 사람들도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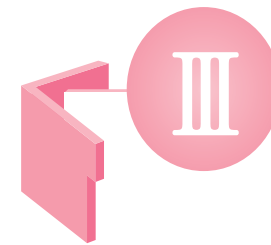
이런 사람들을 위해 우리가 존재한다고 생각한다.

IV. 종합평가

이번 사례관리를 통해 중랑구정신건강증진센터와 중랑구청 실무자가 동시에 느낀 것은 ‘관심의 중요성’이었다. 대상자는 그동안 홀로 생활을 하면서 누구의 도움도 받지 못하였고 정보의 부족으로 공공서비스의 이용을 하지 못해 그 어려움이 더욱 가중되어져 있었다.

삶의 끈을 놓기전 마지막 그의 외침이 동주민센터, 중랑구정신건강증진센터, 북부병원301네트워크, 중랑구청의 관심을 가지게 했고 그 관심이 대상자에게는 위기상황으로부터 탈출 시켜줄 수 있었고 나아갈 수 있는 또 다른 삶의 길잡이가 되었다.

그는 각 기관의 실무자들의 가정방문과 상담, 전화통화만으로 충분히 정서적 안정을 찾을 수 있었던 것 같다.



행복찾은 우수사례 이야기

- 1 마침 또 다른 시작 | 중랑구청 김춘선
- 2 빛나는 내일을 향해 나아가기 | 면목종합사회복지관 신보경
- 3 가족과 이웃이 함께한 독거 어르신 사례관리 |
서울시립대학교종합사회복지관 홍한울
- 4 세상 밖으로 | 구립신내노인종합복지관 신혜영
- 5 무기력한 삶에서 다시 희망을 | 신내종합사회복지관 이승환
- 6 9남매의 러브하우스 | 원광장애인종합복지관 이보람
- 7 함께 하는 삶 | 유린원광종합사회복지관 장동길
- 8 심리, 경제적 문제를 가진 환자에 대한 지역사회와의 협력 |
북부병원 김준희
- 9 희망을 전하는 손길 | 서울시립대학교종합사회복지관 홍한울

마침 또 다른 시작

중랑구청 | 김 춘 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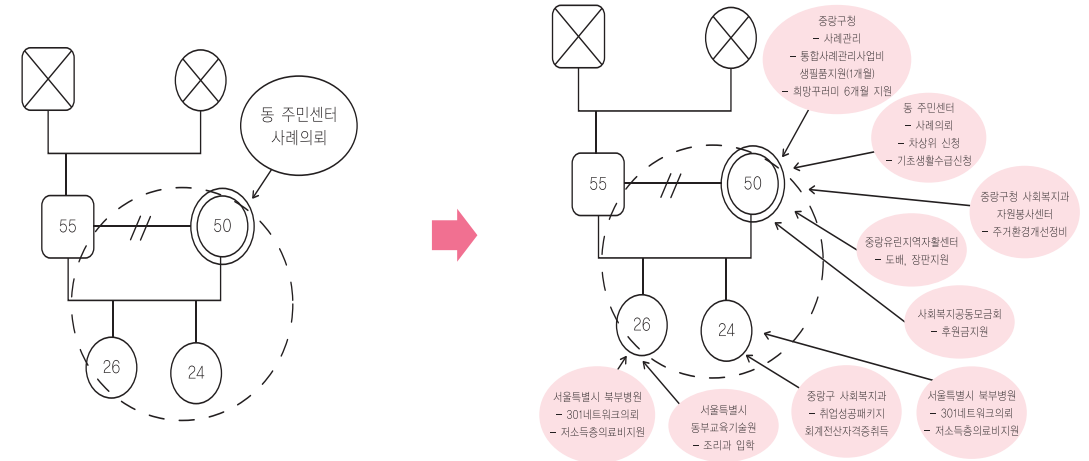
■ 사례개요

대상자명	정유진(가명)	성별/나이	여 / 51	보장구분	저소득
주거형태	다세대주택 지층	가구유형	모자	가구원수	3인
건강상태	만성질환	월소득	수급비(430,200원)		

■ 사례목표

주요문제	- 대상자 정신분열증(f28) 질환의 악화 - 성년인 두 자녀의 우울증 의심 - 성년이나 미취업 상태에 따른 경제적 어려움 - 낙후된 주거환경(곰팡이, 무너진 천장 등)
단기목표	- 자녀들과의 라포형성을 위한 수시 전화방문 및 주1회 가정방문 - 대상자의 질환치료를 위한 차상위본인부담경감 대상 선정 - 식료품 및 생필품을 지속적으로 집중 지원하여 생활안정과 자립기반 조성 - 쾌적한 주거환경 개선지원
장기목표	- 대상자의 정신과치료 및 국민기초생활수급책정을 통해 생활안정 마련 - 자녀들의 대인기피, 우울증의심됨에 따라 정확한 진단을 위한 심리검사 1회 및 치료기회마련 - 두 자녀의 직업탐색 과 전문 기술 습득 및 자격증 취득과 취업

■ 생태도의 변화



■ 의지의 힘

참 힘들고 아픈 시간을 뚫고 2014년의 봄이 오고 있었다. 슬픔에 잠기 듯 통 꽃피울 생각을 앓던 빛나무 가지 끝에도 붉은 물기가 가득 차오르던 3월 중순 동주민센터 사회복지 담당으로부터 “정유진씨 가구에 대한 사유와 함께 긴급한 개입이 필요하다”라는 다급한 요청이 있었다.

얼마 전 서울 송파 세 모녀 사건이 있었던 때라 서둘러 가정방문을 위해 전화연락 및 문자남기기를 시도하였으나 ‘전원꺼짐, 전화 받지않음’이란 송 신음을 수차례 들었지만 정작 기다리는 답은 오지 않았다.

답이 없어 무조건 방문하겠다는 문자에 드디어 답장이 왔다. 박여름은 “우리 집은 수급자도 탈락되었고, 어제도洞주민센터에서 방문하여 도와준다고 했었는데 갑작스런 일에 혼란스럽다고 하며 엄마 모시는 일은 동생과 돌아가면서 보호하기로 했으니 도움은 필요하지 않다”며 모든 것을 거부하였지만, 여름이를 설득하여 열흘 후 방문해도 좋다는 첫 방문을 수락했다.

처음 가정방문 하던 날, 정유진씨 집은 3층짜리 단독주택에 딸린 반지하집이었다. 이들의 집

은 어두컴컴한 방2개와 주방이 전부였다. 세 모녀는 전기도 들어오지 않는 캄캄한 방에 은색돗자리의 반사되는 빛에 의존한 채 방바닥에 누렇게 변색되고 짙은 밥과 볶음, 검은색 찜장으로 늦은 점심식사 중이었다. 수저를 든 채로 웅크리며 불안한 눈길로 고개를 떨구고 있는 정유진씨, 겨울파카에 모자를 겹겹이 쓰고 있는 첫째 자녀 여름이, 비교적 대화가 가능했던 둘째 자녀 가을이 그리고 사례관리사인 나, 이렇게 네 명이 마주하고 있자니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다. 어지럽게 널려 있는 쓰레기, 지붕과 벽의 누수로 생긴 곰팡이와 얼룩, 무너져 내린 천정, 수북하게 쌓인 컵라면 봉지가 집 안 풍경의 대부분이었다. 청소를 해야한다거나 주거환경이 지저분하다거나 하는 생각을 해 본 적이 없었다며 자매는 극도의 무기력을 드러냈다.

정유진씨는 정신과에서 약을 처방받아 복용하고 있었지만 약에 대한 거부감으로 인해 관리가 잘 되지 않는다고 하며, 어눌한 말투와 행동으로 보아 두 자녀 역시 정신질환 의심되었으나 여름이는 “엄마는 우리가 모실 수 있으며 구직활동 중이니 곧 취업도 할 수 있다”며 사례관리를 거부한다는 이야기를 반복했다. 하지만, 극도로 열악한 세모녀의 건강상태와 의식주를 도저히 그냥 둘 수 없어 신속한 개입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하였으나 사례관리를 심하게 거부하는 여름이와의 라포형성이 급선무였다.

현실과 소통이 잘 되지 않는 세 모녀에게는 신뢰가 무엇보다도 중요했다. 세상을 향해 마음의 문을 닫은 세 모녀의 마음을 열기위해 매일 전화통화를 하며 일상적인 안부를 묻고 우리 사회에 다양하고 실질적인 복지 서비스에 대해 안내한지 한 달쯤 지났을 때 여름이가 사례관리 동의서를 가지고 구청으로 내방하여 조금씩 마음의 문을 열었고, 한 걸음씩 조심스럽게 다가갈 수 있었다.

■ 마침 또 다른 시작

먼저 해결해야 될 과제들에 대해 목표설정 및 계획까지 자녀들과 함께 논의하였다. 가족들의 건강을 위하여 주거환경정비를 하기로 하고 사회복지과 저소득층에너지효율지원과 연계하여 보일러 수리, 방, 주방, 화장실 등 전반적인 주거환경개선을 요청하였다. 주말을 통해洞주민센터에서는 폐기물 처리에 드는 제반 비용을 모두를 부담하기로 하고, 낡고 부서지고 곰팡이가 피어

사용할 수 없는 가재도구들을 모두 꺼내고 도배·장판교체 및 전기공사·보일러수리까지 하였다.

사람 사는 집으로 변하는 모습을 보고 사람들의 시선을 피하기만 했던 정유진씨의 얼굴에는 열은 미소가 번졌다.

위기가정 희망마차 중점지원을 통해 정상적인 일상생활을 위한 경제적지원 및 민간후원단체를 통한 난방용품(겨울철 침구 및 전기장판)등을 후원을 받았다. 정유진씨의 언니를 통해 친정형제들이 십시일반 도움을 주어 냉장고와 김치냉장고를 구입해주었으며, 자녀들의 정신과치료 및 취업을 조건으로 국민기초생활수급대상으로 선정되었다.

주거환경정비 및 경제적지원으로 일상생활이 안정되어갈 즈음, 자녀들에게 건강검진을 받아보자는 제안을 했다. 여름이는 대인기피증으로 마트 가는 것도 두렵고 누군가가 집에 방문을 하면 무서워서 자신도 모르게 화장실로 숨는다고 했다. 가을이는 몸을 좌우로 움직일 때마다 가슴에서 바람 빠지는 소리가 나고 우울감도 매우 심하다는 호소를 했다. 중병이 걸린 것 같아 두렵지만 선생님과 함께 간다면 심리검사 및 검진을 받아보겠다고 하였다. 서울특별시 북부병원 301네트워크를 연계하여 은둔형외톨이, 대인기피, 우울증의심에 따른 정확한 진단을 위한 심리검사를 했다. 다행히 내과적인 부분에서는 이상이 없었으며, 정신과는 약물치료 및 외래치료를 받는 것으로 진단을 받았다. 그 결과 여름이와 가을이는 사람들을 의식하지 않고 낮에도 활동할 수 있고 밤에도 모자를 깊숙이 눌러쓰던 모자대신 예쁜 머리띠를 하고 외출도 가능하게 되었다.

때론 인간은 손에 쥐어주는 빵 한 조각보다는 누군가 자신의 존재를 지켜봐주고 인정해주기를 더 갈망한다. 영원히 숙명인줄 알았던 가난과 소외가 진정한 사랑과 배려 속에서 긍정의 에너지로 바뀐 것이다.

■ 희망가

여름이와 가을이를 만나지 1년이 되어갈 무렵, 공원벤치에서 자립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다. 여름이는 “지금까지는 사람들과의 관계가 두려워서 사회로 나간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었지만 이제는 세상으로 나갈 수 있어요 선생님!” 자신 있게 자신의 생각을 분명하게 이야기해주는 여름

빛나는 내일을 향해 나아가기

면목종합사회복지관 | 신 보 경

■ 사례개요

대상자명	정빛나(가명)	성별/나이	여 / 45	보장구분	일반수급자
주거형태	LH전세임대주택	가구유형	부부중심	가구원수	4인
건강상태	지적장애3급	월소득	국민기초수급비		

■ 사례목표

주요문제	• ‘돈’ 으로 인해 서로를 불신 • 가족 내 역할붕괴 – 가족 내에서 배제 된 남편 – 청소년 자녀들이 은행, 주민센터 일 등을 처리해야하는 상황 • 남편과 시댁 식구들에게 무시당한다는 정빛나 어머니의 스트레스 • 아버지께 대한 분노가 크고, 또래관계에 어려움을 표현하는 아들의 상황 • 부부사이가 좋지 않아 정빛나 어머니는 아들과, 남편은 딸과 취침 • 남편의 알코올중독 및 자살충동
단기목표	• 돈 때문에 생긴 가족불신 근절 및 가족 역할 정리 – 수입/지출 내역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비밀상적인 지출은 합의를 이끌기 – 남편이 가족의 일에 힘을 가질 수 있도록 역할 세우기 • 정빛나 어머니의 스트레스 완화 – 일상생활 기능 강화를 통해 자신감 향상 – 남편과 시댁 식구들이 아닌 다른 것에 주의를 돌릴 수 있는 관심사 갖기 – 상담을 통해 우울감 해소 • 상담 연계를 통한 아들의 스트레스 해소
장기목표	• 이사 – 공공임대주택 신청 – 보증금이 증액될 수 있으므로 돈을 모아두기 • 남편의 알코올중독 및 자살충동 완화 – 좋아하는 일, 잘할 수 있는 일을 지속하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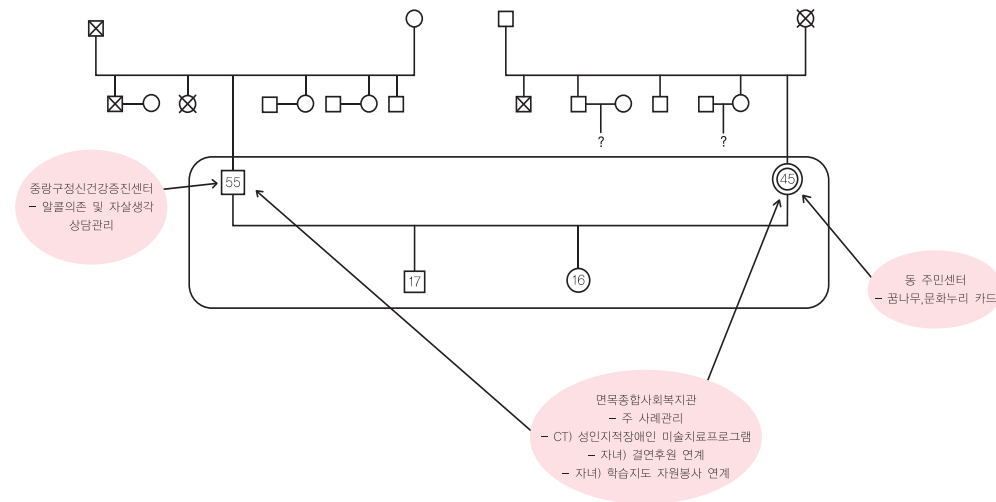
이가 고마워서 눈시울이 뜨거워졌다. “너희들이 제일 잘 하는 일은 무엇이며, 어떤 일을 했을 때 즐겁게 할 수 있는 지를 생각해보라”는 과제를 준 지 일주일 만에 가을이로부터 연락이 왔다.

회계를 배워(컴퓨터활용능력2급, 전산회계1급 자격증 취득)취업을 희망한다는 내용이었다. 취업성공패키지를 통해 자격증취득을 하기로 하고 사회복지과로 연계한 결과 컴퓨터활용능력2급 자격증 취득하였으며 11월에 있을 전산회계1급자격증 취득을 위해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 여름이도 서울특별시 동부기술교육원 조리과에 당당하게 입학하여 조리사의 꿈을 키우고 있다. 오늘도 자격증 취득을 위해 학원으로 달려가는 여름이와 가을이에게 소리 높여 이야기하고 싶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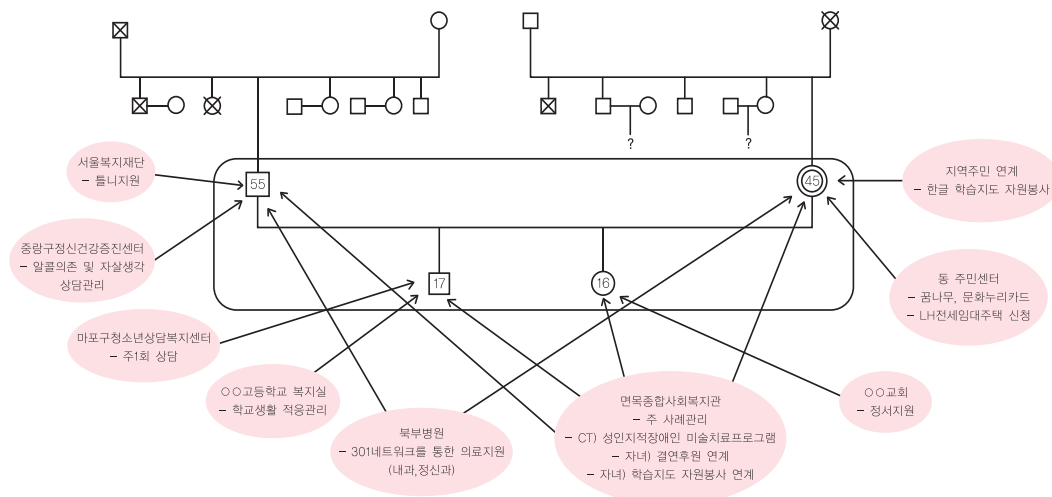
“이제 세상으로 나가기 위해 발돋움하는 사랑스런 여름아, 가을아 길이란 한 사람이 처음 걸은 자취를 따라 곧거나 휘면서 만들어지기 마련이란다. 아무리 절망적이어도 누구도 예외 없이 희망을 품을 수 있는 권리가 있고, 열심히 노력하면 누구든 원하는 바를 이룰 수 있단다.” 알지? 여름이와 가을이 곁에는 春(봄춘)자를 쓰는 내가 있다는 사실을!!!

■ 생태도의 변화

변화 전)



변화 후)



■ 정빛나님 가정과의 만남

2014년 1월, 다른 팀 선생님께서 정빛나님 가정을 인수인계 받았다. 정빛나님은 남편과 아들, 딸 이렇게 네 식구가 함께 살고 있다. 이 가정은 중랑구정신건강증진센터와 복지관에서 함께 공동사례관리를 하며 여러모로 걱정이 많이 되는 가정이었다. 정빛나님은 지적장애 3급의 문맹이고, 남편은 2011년경 일을 그만 둔 후 알코올에 의존하여 생활하고 있었다. 남편의 알코올 의존도가 높아지면서 자살충동이 강해져 일 년에 한 번 정도는 폐쇄병동에 입원해왔고, 다른 건강상의 이유로도 병원에 자주 입원하게 되었다. 반복되는 힘든 상황 속에 부부싸움이 잦았고, 아들은 아버지에게 대한 불신과 원망이 깊어진 상태였다.

남편이 돈을 가지고 있으면 모두 술을 먹는 데 사용할까봐 정빛나님은 생활비 관리를 하고 있었는데, 문맹이기 때문에 사실상 자녀들의 도움 없이는 일처리가 불가능했다. 하지만 자녀들도 아직 어려서인지 돈 관리가 체계적으로 되지 않았고 공과금이 자주 미납되는 상황이었다. 이전에 담당하던 복지사도 애정을 가지고 정성껏 가정을 만나왔지만 변화를 이끄는 것이 쉽지 않아 늘 고민이 많았다고 한다. 저 역시 무엇을 어떻게 다르게 해볼 수 있을는지 고민이 되었다.

■ 다르게 해보기1 - 가족회의

먼저 가족 안에 깊은 불신감의 원인을 살펴보니 '돈'이 그 중심에 있었다. 남편은 알코올중독이라는 이유로 돈에 대해 가족들에게 배제되어 있었다. 그러다 보니 어른으로서의 권위, 가장으로서의 역할까지 가정내 남편이 설 자리가 없어 보였다. 경제상황을 모르는 남편은 정빛나님을 도와 지출 처리를 돕는 자녀들을 오해하기도 하였다. 가뜩이나 또래와 달리 공과금이 얼마 나오는지, 뭐가 미납되었는지 계산하는 자녀들이 안쓰러웠는데 사례담당으로서 속상한 마음이 들었다.

이 실타래를 풀 방법이 없을까 고민하던 중 '가족회의'가 불현 듯 생각났다. 우선 경제상황을 투명하게 공유하면 서로에 대한 불신감이 줄 것 같았다. 그리고 회의 진행을 남편에게 맡겨 가장의 권위를 살리고, 부모는 부모답게, 자녀는 자녀답게 역할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았다.

가족들을 한 명씩 만나 가족회의 취지를 설명했고, 모두 크게 싫어하지도, 좋아하지도 않았다. 나쁘지 않은 출발! 이렇게 2014년 2월부터 매월 수급비 받는 날에 온 가족이 모였다. 첫 회의 때 월세, 공과금, 핸드폰, 용돈 등 고정적인 가계지출항목을 정하고 나니 이후에는 아주 수월했다. 네 번째 회의부터는 자연스레 경제적인 부분이 아닌 가족의 일을 같이 결정하고 생각해보기 시작했다.

그 결과 무조건 남편에게 지출내역을 숨기던 정빛나님은 남편과 의논해서 지출 여부를 결정하게 되었고 남편은 술이나 담배값을 아꼈고, 자녀들의 일에 좀 더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 자녀들은 돈에 관해 신경 쓰는 일이 줄어들니 자기 생활에 좀 더 충실해졌다. 다툼은 줄고 조금이나마 늘었다. 가족회의를 하는 동안 불신감이 줄고, 가족 역할이 정돈 된 것이다. 물론 완벽하지는 않다. 여전히 상처를 주고받을 때도 있고, 서로 보완적인 역할을 할 때도 있다. 하지만 시간이 쌓이다 보면 더 좋아지리라 믿는다.

■ 다르게 해보기2 - 정빛나 어머니의 자립을 위한 도전

정빛나님은 평소 남편과 시댁식구들이 자신을 비난한다는 것 때문에 많은 스트레스를 받고 있었다. 정빛나님은 글자나 시계도 보지 못하는 문맹으로 일상생활이 잘 되지 않아 남편과 시댁식구들이 답답함을 느꼈던 것이다. 비난을 받고 있는 감정적인 어려움도 걱정이 되었지만 담당자로서 또 다른 고민들이 생겼다.

자녀들이 독립할 시기가 왔을 때 정빛나님에게 어느 정도 자립능력이 없다면 어떻게 될지 걱정이 된 것이다. 우선 해봄직 한 것부터 하나씩 도전해보기로 했다.

첫 번째 도전은 담당자의 이름 외우기였다. 만날 때마다 알려드려도 두 달 남짓 이름을 외우지 못한 정빛나님은 복지관에 전화하면 “상담선생님 바꿔주세요”라고 했다. 그래서 복지관의 전 직원이 도와주었다. “아! 신보경 선생님 찾으세요?”라며 한 글자 한 글자 또박또박 다시 전해드린 것이다. 효과는 만점이었다. 이제 어머니는 담당자 외에 몇몇 다른 직원들 이름도 외우게 되었다.

두 번째 도전은 문자공부였다. 어머니에게 좋은 어르신 한 분을 소개했으려다. 2014년 3월부터 시작된 만남은 지금까지 주 1-2회 만남으로 이어지고 있다. 지금 어머니는 10까지의 숫자를 셀 수 있고, 가족의 이름을 쓸 수 있다. 종이에 적힌 전화번호를 보고 핸드폰 버튼도 이전보다 빨리 누를 수 있게 되었다. 아직 문자를 안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발전한 것은 확실하다.

세 번째 도전은 스트레스 받는 일 외의 다른 것에 관심을 돌리기였다. 우선 힘든 일을 반복해서 생각하는 것을 의도적으로 중단하길 요청했다. 그리고 복지관에서 참여하고 있는 성인지적장애인 미술프로그램의 그림그리기 숙제나 문자공부에 좀 더 몰두하길 부탁했다. 어머니는 여기에 더해 약수터에 다녀오는 일로 집중력을 분산시키기도 했다. 부정적인 생각이 맴도는 것을 주체하기 힘들어 보였지만 정빛나님도 의도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네 번째 도전은 혼자 대중교통 이용하기였다. 그동안 남편이 건강상의 이유로 건국대학교병원, 서울의료원, 북부병원에 입원했다. 병문안을 갈 때 지하철, 버스 타는 법을 알려드리고 시민들에게 도움을 요청해서 자꾸 스스로 해나가도록 권했다. 그러자 “선생님 저 버스 탔어요!”, “선생님 저 병원에 도착했어요!” 성취감에 가득 찬 목소리로 하나의 과업을 이뤄갈 때마다 전화가 걸려왔다. 하지만 요즘에는 “선생님~ 저 어제 병원에 다녀왔어요.”로 바뀌었다. 몇 번 다녀온 병원은 혼자 오가는 것이 거뜬해진 덕분이다.

이렇게 열심히 노력하는 정빛나님을 위해 담당자도 돕고 싶었다. 그래서 남편과 시댁식구들에게 정빛나님이 가진 능력의 한계, 그리고 눈치 있게 일처리를 잘 하고 있는 부분을 설명하고, 잘한 부분에 대해서는 격려해달라고도 부탁했다. 그 결과 고맙게도 마음을 열고 정빛나님을 보려고 노력하는 것은 느낄 수 있었다.

그리고 어머니 혼자 기분을 조절하는 것이 힘든 부분도 있지는 않을까 싶어 북부병원 301네트워킹을 통해 정신과 진료를 이용하시도록 권했다. 우울감이 심한 편이어서 약을 먹는 것이 좋겠다는 의사선생님의 진단이 있었다. 다행히 처방받은 약이 감정조절과 불면증이 해결에 도움이 되었다.

2015년에 정빛나님이 자주 이야기하는 말이 있습니다. “선생님! 저 많이 변했죠? 마음이 달라 졌어요!” 어머니 스스로도 변화를 느낀다니 참 반가운 소식이다. 정빛나님의 다부진 표정만큼 스스로 해내실 수 있는 것도 확실히 늘어가고 있다.

■ 그 밖의 변화들

2015년 8월 이사를 했다. 몇 차례 도전 끝에 SH공사전세임대주택 대상가정으로 선정이 된 것이다. 이전 집에서는 잠잘 때 사용하는 방을 나누는 것 때문에 걱정이 되었다. 이사할 집에는 부엌 겸 거실이 있고 공간을 잘 분할하여 가족들이 쓸 수 있게 되어 안심할 수 있었다. 남편의 건강이 극도로 나빠지면서, 여러 번 위태로운 순간도 있었지만 도움의 손길들 덕에 계약과 이사를 무사히 마칠 수 있었다.

정빛나님의 두 자녀는 자기 할 일을 잘 찾아하는 똑똑한 학생이다. 딸은 신앙심이 깊어 힘든 마음도 나름대로 풀어내는 것 같다. 반면 아들은 가족에 대한 애증이 깊고, 내성적인 편이라 더 염려가 되었다. 중학교 때는 멘토선생님을 통해 해갈을 하는 듯 보였는데, 고등학생이 되니 학업이 바빠져 다른 활동을 하지 못하니 더 힘들어보였다. 다행히 지역교육복지전문가를 통해 2015년 9월부터 학교 근처 상담센터를 연계할 수 있었다. 이제 상담을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았지만 아들은 상담에 적극적으로 응하고 있다. 다행이다.

정빛나님의 남편은 복지관 행사 때 봉사활동을 오기도 하고, 술을 줄이려고 노력도 했다. 하지만 단주 의지가 낮았고, 심적으로 많이 약해진 상황이어서 큰 변화를 보기가 쉽지 않았다. 어떻게 잘 도울 수 있을지 늘 고민이 되지만 조급함을 버리고 남편의 속도에 발맞추고자 한다. 담당자와 가족들, 또 다른 주변 분들이 응원하고 있으니 좋은 일이 있을 것이라는 마음을 놓지 않으면서 말이다.

■ 돕는 손길들

정빛나님의 가정을 만난 이후 가족의 소중함, 이웃의 소중함을 느낀다. 무슨 일이 생기면 주변 사람들이 모른 체하지 않고 돕는다. 소원했던 친정, 시댁식구들도 근래 들어 더 많이 신경써준다.

주민센터, 정신건강증진센터, 북부병원, 학교, 우리 복지관의 직원들 역시 두말 할 것 없다. 집주인, 야쿠르트 아주머니, 동네 아주머니들, 교회 성도들도 빼놓을 수 없다. 이름도 얼굴도 모르지만 정빛나님을 대중교통을 잘 이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시민들까지. 마음 써주는 사람이 없다면 이를 수 없는 일이 이뤄진다는 것을 알았다.

“세상은 고통으로 가득하지만 한편 그것을 이겨내는 일로도 가득 차있다”

by. 헬렌켈러

지역사회가 함께 이 가정을 위해 애쓰고 있으니 더 빛나는 내일이 있으리라 믿는다. 화이팅!

가족과 이웃이 함께한 독거 어르신 사례관리

서울시립대학교종합사회복지관 | 홍 한 울 사회복지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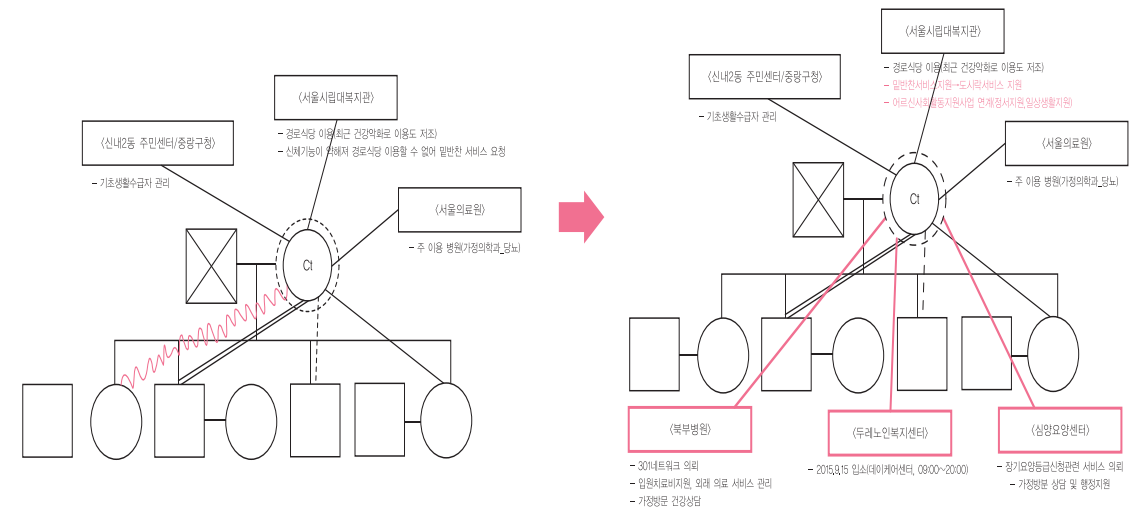
■ 사례개요

대상자명	최미나(가명)	성별/나이	여 / 75	보장구분	기초생활수급
주거형태	공공임대아파트	가구유형	독거노인	가구원수	1
건강상태	당뇨	월소득	기초생활수급생계비, 자녀지원		

■ 사례목표

주요문제	• 슬하에 자녀들이 있으나 대상자를 직접 부양할 가족이 부재한 상황 • 대상자는 당뇨로 인한 건강악화, 경증치매증상으로 스스로의 건강과 일상생활관리 어려움
단기목표	• 대상자의 당뇨관리 및 치료 • 일상생활지원서비스를 통한 독거노인의 가정 내 안전한 생활 지원
장기목표	• 대상자의 돌봄 및 부양과 관련한 가족들의 역할 정하기

■ 생태도의 변화



■ 노인 돌봄에 어려움을 느끼고 있는 가족

지난 겨울, 복지관으로 도움을 요청하는 문의 전화가 왔다. 건강이 좋지 않은 엄마가 혼자 집에 계시는데 복지관의 도움을 받고 싶다는 내용이었다. 전화를 준 사람은 대상자의 딸로 개인적인 사정 때문에 해외에서 지내고 있어 母를 계속 돌볼 수 없다고 하였다.

가정방문을 통해 만나기로 약속하고 대상자와 딸을 만나러 갔다. 대상자는 마른 몸에 혈색 없는 얼굴로 방에 우두커니 앉아 있었다. 그런 대상자를 딸은 걱정 어린 눈빛으로 바라보며 조용히 한 숨을 내 쉬었다. 딸은 대상자가 당뇨를 오랫동안 앓아왔는데 혼자 사시다보니 관리도 제대로 되지 않아 건강이 많이 악화되었다는 이야기를 했다. 식사 하는 것도 불규칙적이고, 최근 치매증상으로 약도 잘 챙겨 드시지 않아 걱정이라며 자신은 곧 다시 출국해야 하는데 대상자를 혼자 두고 가기 어렵다는 이야기를 했다. 다른 가족들은 없는지 물었는데, 다들 사정이 여의치 않아서 대상자를 돌보기 힘들다고 말하며 다시 한 숨을 내 쉬었다.

대상자는 당뇨로 인해 시각, 청각도 조금씩 소실되어 의사소통에도 어려움이 있는 상황이었다. 혼자 생활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하여 대상자와 딸에게 어떤 도움이 필요한지에 대해 함께 이야기를 나누었다. 딸은 대상자가 집에서 식사를 잘 하실 수 있도록 정기적으로 밑반찬이나 도시락이 오면 좋겠다고 했다. 대상자도 최근 추어진 날씨로 외출이 어렵고, 건강이 좋지 않으니 그렇게 해 주면 고맙겠다는 이야기를 했다. 이 외의 다른 부분은 필요하지 않다고 하여 우선, 대상자의 결식을 예방하기 위해 밑반찬을 지원하기로 하고 상담을 마쳤다.

■ 지역사회 자원 연계를 통한 가정 내 노인 돌봄 부담 경감

상담 이후, 딸은 출국했다. 혼자 남게 된 대상자 가정에 일주일에 두 번 반찬이 배달되었고 서비스를 통해 대상자의 근황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러던 중 대상자가 당뇨로 병원에 입원했다는 소식을 들었고, 대상자의 건강상태를 다시 확인하기 위해 퇴원 날짜에 맞춰 가정방문 상담을 진행하였다. 상담을 통해, 대상자가 자신의 병력에 대해서 잘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과 식사나 약복용 관리도 여전히 불규칙적이라는 사실을 확인했다. 상담 당일 당뇨수치를 측정했는데, 위험 수준이었는데도 이를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함께 논의할 가족원이 부재한 상태였다. 더군다나 당뇨로 인해 귀도 잘 안 들려서 전화벨 소리, 초인종 소리를 잘 듣지 못하는 대상자의 안전 문제도 걱정되었다.

우선 대상자의 당뇨관리가 우선이라고 판단하여, 대상자와 대상자 자녀의 동의를 얻어 서울북부병원 301네트워크에 의뢰했다. 의뢰 이후, 북부병원 공공의료팀에서 가정방문 상담을 진행하였고, 대상자의 건강상태를 확인 후 바로 입원하여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였다. 대상자는 북부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았고, 가정에서 당뇨를 관리하는 방법에 대해 교육을 받으며 스스로의 건강 상태에 대해 정확하게 알고 관리할 수 있게 되었다. 대상자가 퇴원한 이후에는 복지관에서 대상자의 가정에 정기적으로 방문하며 건강상태를 확인했다. 약복용 또는 당뇨로 인한 건강 문제가 발생할 경우 북부병원 공공의료팀 담당자와 통화하여 긴급 상황을 해결하기로 협력하여 대상자의 건강에 대한 안전망을 구축하였다. 의료서비스지원을 통해 대상자가 상당부분 건강을 회복할 수 있었지만 여전히 가정에서 관리하는 필요한 상황이었다. 기존에 이용했던 밑반찬 서비스

를 도시락 서비스로 전환하여 매일 규칙적인 식사를 하실 수 있도록 지원하였고, 약물관리도 잊지 않고 하는지를 모니터링 할 수 있었다.

건강문제로 가정 내 고립되어 생활하는 대상자를 위해서 노인사회활동지원사업 ‘노노케어’에 연계하여 정서지원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이웃과 소통하고, 외로움을 해소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일주일에 세 번 어르신 도시락을 직접 들고 가정방문을 진행하는 노인사회활동지원사업 어르신들 덕분에 대상자의 근황 확인이 더욱 수월해졌으며, 대상자 또한 어르신들과의 관계 맺음으로 활력을 찾으셨다. 하지만 재가서비스만으로는 대상자의 일상생활과 건강을 관리하는 부분에 한계가 있었다. 하루에 3끼 규칙적인 식사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아침·저녁으로 복용해야 하는 약을 챙겨주기 위해서는 대상자 곁에 이를 지원할 인력이 상주해 있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이와 관련하여 대상자 자녀와 다시 상담을 진행한 결과 지역의 요양센터를 통해 대상자의 장기요양등급을 신청하기로 결정했다.

요양센터에 대상자를 의뢰한 후, 요양센터 담당자는 가정방문을 통해 대상자, 대상자 자녀와 상담하여 장기요양등급 신청서를 건강보험공단에 접수하였다. 심사와 관련한 서류준비는 대상자의 자녀가 맡아서 진행하였고, 그 결과 등급이 확정되었다. 대상자와 상의하여 주간보호시설 입소를 결정했다. 대상자 자녀와 입소 결정에 대한 통화를 하며 그 동안 가족들이 모에 대한 걱정과 불안은 있었지만 각자 사정 때문에 부양에 어려움이 있었다며, 복지관에서 관련 정보를 알아봐 주고 도움을 받을 수 있어서 고맙다는 인사를 전했다.

대상자의 사례를 진행하며, 경제적인 문제로 노인 돌봄에 부담을 느끼고 있는 가족들은 많지만 관련 제도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지 못하는 현실을 알게 되었다. 가족 안에서 해결해 보려고 노력하지만 한계에 부딪히게 되고, 결국 가족 간의 갈등, 노인 부양에 대한 회피로 종결되어 결국 ‘노인’에게 피해가 가는 상황이 안타까웠다.

자녀가 있기 때문에, 자녀가 해야 하는 역할이라는 사회적 관념 때문에 오히려 가족이 해체되고 노인이 고통 받는 아이러니한 상황에서 지역복지관에서 근무하는 사례관리자의 역할에 대해 생각해 보게 되었다. 자녀들을 탓하기 보다는 그 가정의 상황을 인정하고 가족의 부담을 경감할

세상 밖으로

구립신내노인종합복지관 | 재가복지사업담당 신 혜 영

■ 사례개요

대상자명	김초롱(가명)	성별/나이	여 / 74세	보장구분	수급
주거형태	월세	가구유형	독거	가구원수	1인
건강상태	양호	월소득	수급비 (31만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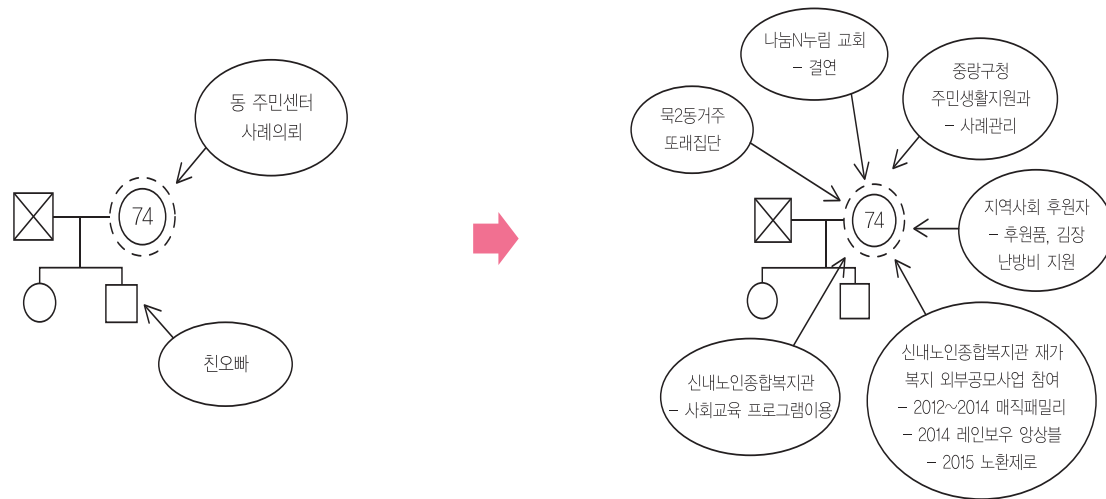
■ 사례목표

주요문제	- 우울증, 대인기피증으로 인한 세상과의 단절 - 경제적인 어려움
단기목표	- 복지관 및 외부 프로그램 참여 유도 - 후원물품 지원, 난방비 지원
장기목표	- 우울증에 대한 자기인식, 우울증 경감 프로그램 참여를 통한 우울증 경감 유도 - 결연 후원자 연계

수 있는 지역사회 자원을 탐색하여 연계하는 것이 가족의 건강과 더 나아가 사회적 약자인 ‘노인’을 지키는 데 필요한 일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리고 지역기관 담당자들의 관심, 이는 곧 이 지역 사회에서 함께 살아가는 이웃의 관심을 이끌어낼 수 있는 계기가 된다는 것도 느낄 수 있었다.

대상자의 부양 부담에 대해 막연한 어려움으로 갈등을 겪었던 가족들이 지역기관과 이웃의 도움으로 지금은 서로 의견을 나누며 대상자의 돌봄에 협력하고 있다. 가족과 이웃, 지역이 함께하는 사례관리의 긍정적인 힘을 발견했던 뿌듯한 사례였다.

■ 생태도의 변화



■ “선생님, 미안해. 다음에 참여할게. 이번에는 어려울 것 같아..”

2008년 당시 처음 담당자가 방문했을 때 김초롱 어르신은 노인 우울증 척도 검사 결과 중증으로 나타날 정도로 우울감이 높았으며, 사람이 많은 장소에 가기 싫다는 이유로 외부활동을 전혀 하지 않아 방 안에서만 생활하고 있었다. 2006년도에 처음 목동으로 이사온 이후에 목동에 거주하고 있는 친오빠 이외에는 사적·공적 지지망이 전혀 없는 상황으로, 어르신의 욕구는 경제적인 지원 부분에 한정되어 있었다.

이에 가정방문 후 사례회의를 통하여 일반대상자로 선정하고, 초반에는 대상자의 욕구에 맞추어 경제적 지원 중심으로 서비스를 진행하되 장기적으로는 대상자의 강점인 신체적 활동이 용이한 점을 강화하여 복지관 이용 등 외부활동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개입을 진행하기로 하였다.

김초롱 어르신은 겨울철에 경제적으로 부담이 되는 난방비, 물품지원에 고마워하며 감사를 표하였고, 담당자에게도 점차 마음을 여는 모습을 보였다. 하지만, 외부에서 진행되는 프로그램 및 행사는 매번 참여를 거절하였다. 몸이 아프다, 사람 많은 곳에 가기 싫다가 주된 이유였다. 하지

만 담당자가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방문하여 상담을 진행한 결과, 김초롱어르신은 차츰 달라지는 모습을 보였다.

장기적인 프로그램 참여는 어렵지만, 일회성 행사의 경우 참여를 긍정적으로 생각해 보기로 하였다. 2010년 복지관 송년행사 참여를 계기로 2012년에는 저소득 홀몸어르신의 정서적 안정과 가족관계기능회복을 위한 가족결연프로그램 ‘함께해요, 매직패밀리’에 참여하였다. 초등학교생과 팀을 이루어 서툰 솜씨로 지폐마술, 손수건 마술을 배우며 지역사회에 마술공연 봉사활동을 진행하였다.

김초롱 어르신은 ‘처음에는 남들 앞에서 공연을 한다는 것에 두려움이 많았지만, 지금은 기쁘고 즐겁다’라고 이야기하시며,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모습을 보였다. 프로그램 참여 후 자아존중감은 43점에서 45점, 사회적 지지는 47에서 53점으로 눈에 띄는 향상을 보였다. 이후 나타난 가장 큰 변화는 사회성 향상인데 프로그램에 참여하였던 목동 주변 여자 어르신과 또래집단을 형성하여 다니게 되었다.

2013년도에는 부양자기준 초과로 수급비가 줄어드는 바람에 경제적인 위기에 직면하였지만, 2014년에 나눔 N누림교회를 연계하여 매월 정기적인 결연후원금 지급과 함께 정서적인 지지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처음 교회권사님과 어르신을 방문하였을 때 반가움에 어쩔 줄 몰라하며 눈물을 보이시기도 했다. 2014년에는 우울증 감소 프로그램 ‘레인보우앙상블’에 참여하여 우울감이 중증(24점)에서 경증(13점)으로 감소하였다. 주요문제에 대한 개입이 이루어지자, 김초롱어르신은 눈에 띄는 변화를 보였다.

■ “요즘 운동을 하니깐, 몸이 몰라보게 유연해 졌어!”

얼마 전 김초롱어르신이 담당자에게 했던 말씀이다. 현재 어르신은 만성질환인 관절염, 고혈압을 관리하기 위하여 ‘노환제로’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다. 복지관에서 점심을 드시고 나면, 자연스럽게 당구장에 가서 또래 어르신들과 당구를 친다. 항상 굳어있던 표정도 생글생글 웃는 표정으로 바뀌었다. 세상으로의 소통을 시작하고 계신 김초롱어르신! 어르신의 활기찬 노후생활을 응원한다.

무기력한 삶에서 다시 희망을

신내종합사회복지관 | 이 승 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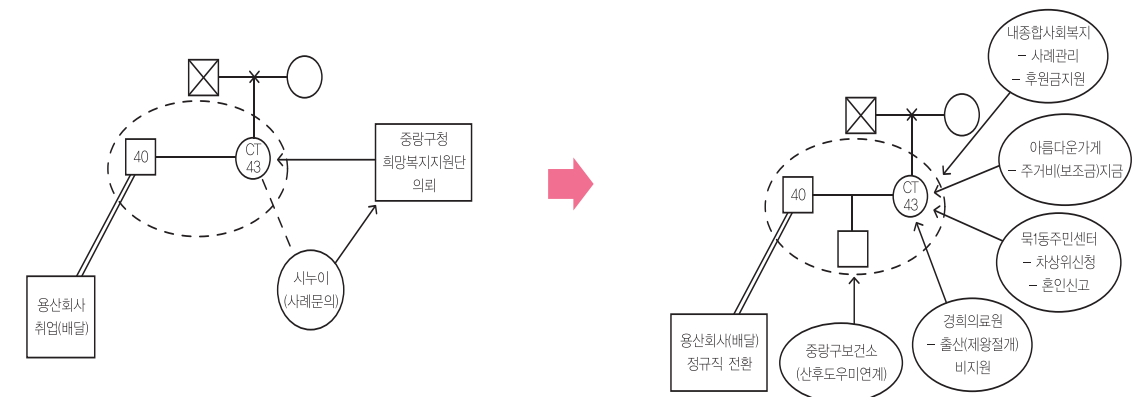
■ 사례개요

대상자명	김정희(가명)	성별/나이	여 / 43	보장구분	차상위
주거형태	다세대 주택	가구유형	부부중심	가구원수	2인
건강상태	자궁근종	월소득	120만원		

■ 사례목표

주요문제	• 주거불안정 • 임신 및 자궁근종으로 인한 건강문제
단기목표	• 주거비 지원을 통한 주거안정 및 경제생활 지원 • 출산 및 자궁근종 치료
장기목표	• 자활을 통한 안정적인 생계유지와 자녀양육

■ 생태도의 변화



■ 전화 한 통, 그리고 고시원

2014년 5월 의료비 지원을 요청하는 전화한통이 걸려 왔다. 전화를 하신 분은 김정희님의 시누이가 되는 분으로 어려움을 이야기 하시며 꼭 좀 부탁한다는 말씀을 하셨다. 구청 긴급지원 담당 주무관님께 소개를 받았다고 하여 담당 주무관님과 전화통화 후 김정희님께 연락 후 현재 거주하고 있는 고시원에 방문하였다. 많은 고시원들이 그렇듯 창문은 없었으며, 한 명이 누우면 딱 차는 그런 고시원이었다. 김정희님과 상담을 하며 많은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다.

김정희님의 부모님은 어렸을 때 이혼하였으며 아버지는 병환으로 사망하였고, 형제는 2남 2녀가 있으나 경제적인 도움을 기대하기는 어려운 상태였다. 사실혼인 배우자(이하 남편)도 아버지는 사망하였으며 어머니는 혼자 청소일을 하며 근근히 살아가고 있었다.

고시원 총무였던 남편과 만나 서로 의지하며 근로를 통해 본인에게 있던 빚도 다 갚고 청약저축도 가구원별 가입하여 조금씩 안정을 찾게 되었으나 갑작스러운 임신으로 현재 임신 5개월 정도 되었을때 자궁근종을 판정받아 노산으로 출산 시 제왕절개를 할 가능성이 매우 큰 상태여서

많은 걱정을 하고 있었다.

이보다 더 큰 문제는, 현재 거주하는 고시원이 1명이 늑기에도 매우 협조하여 배우자와 같은 층방을 따로 얻어 살고 있으며, 고시원비 또한 김정희님은 월20만원, 남편은 월21만원 총41만원으로 주거비 지출에 많은 부담을 느끼고 있었고, 또한 자녀 출산이 얼마 남지 않아 거주지 이전이 시급한 상황이었다. 또한 공동 거주 공간이다 보니 담배 연기로 인한 냄새가 너무 많이 나 대상자와 태아에게도 매우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당장 남편은 고시원 충무를 그만두고 용산 전자상가에서 일을 하며 120만원을 벌게 되었지만 주거지 마련과 의료비를 마련하기에는 너무나 힘들었다.

■ 어디서부터 무엇을?

당장 어디서부터 접근을 해야 할지 도저히 감이 잡히지 않았다. 김정희님은 빨리 고시원에서 나가기를 희망하였고 팀 회의에서도 의료비 지원보다 주거비 마련이 시급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김정희님과 하나씩 계획을 세우고 차근차근 해결해 보기로 하였다. 우선 주거비 지원을 위해 서울시 사회복지협의회의 「주거 위기가정 살리기 임차금 지원사업」에 신청해 보기로 하였다. 우여곡절 끝에 신청하였으나 안타깝게도 지원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김정희님은 대출이라도 받을 수 있으면 좋겠다고 하여 저소득 대상자 관련 대출을 구청에 알아보았으나 신청자격에 따라 지원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먼저 은행에 알아보아야 한다고 하였다.

그러던 중 마침 아름다운가게에서 희망나누기 사업이 시작되어 김정희님과 상의를 통하여 주거자금으로 보증금 500만원을 신청하기로 하였다. 신청결과를 기다리며 김정희님과 상의를 통하여 우선 양가 가족에게 허락을 받고 혼인신고를 하기로 하였다. 또한 주민센터에 문의결과 사실혼 관계인 경우 차상위 신청이 가능하다고 하여 김정희님과 같이 주민센터에 가서 상담을 받고 차상위 신청을 할 수 있었다.

초조하게 기다리던 주거자금 지원 발표일!! 드디어 7월 말 주거비 500만원 지원에 선정되었다.

김정희님과 함께 끊임없이 달려온 결과라고 생각하니 제가 지원 받은 것처럼 가슴이 벅찼다. 김정희님과 같이 부동산에 가서 임대차 계약서를 쓰면서 지금까지의 대상자에 대한 심적인 부담

이 한결 가벼워지는 느낌이었고 김정희님은 감사하다는 말을 계속 하시며 기뻐하셨다.

혼인신고도 종결되고, 배우자도 열심히 근로를 하고 있어 이제 출산 및 자궁근종 치료만 잘 되면 되는 것이다. 사례관리 초기에 인큐베이팅(이랜드복지재단) 담당 박00선생님과 통화를 하여 8월정도 신청을 하기로 하여 사실 어느 정도 마음을 놓고 있었다.

그런데 8월 13일 아침에 배우자 분에게 전화가 왔다. 노산에 자궁근종으로 꾸준히 병원을 다녔는데도 불구하고 오늘 갑자기 새벽에 양수가 터졌으며, 다니던 병원에서 큰 병원으로 가라고 해서 경희의료원으로 급히 구급차로 이송되었다는 것이었다.

두근거리는 마음을 추스르고 급히 인큐베이팅 관련 서류를 가지고 경희의료원으로 가니 힘이 없어 김정희님이 누워있고 배우자가 걱정스러운 얼굴로 출근도 못하고 서서 안절부절 하고 있었다. 태아의 폐가 아직 다 자라지 않아 최대한 출산을 미뤘다가 제왕절개를 할 예정이라는 담당 간호사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었고 인큐베이팅 의사소견서를 드리며 사정을 이야기 하고 부탁을 드렸다. 남편 분에게는 사회사업실에 바로 찾아가서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 상담을 하도록 하였다. 다행히 15일 조산이었으나 건강한 아이를 순산하였으며, 김정희님도 건강에 이상이 없었다. 또한 더 기쁜 소식은 경희의료원에서 김정희님에게 110만원의 의료비를 지원하였다는 것이다.

■ 이제부터 좋은 일만 있을 거예요

폭풍같은 일들이 지나가고 언제 그랬냐는 듯 평온한 일상이 시작되었다. 9월 2일, 김정희님의 퇴원 후 처음으로 이사한 집으로 가정방문을 하였다. 김정희님은 8월 18일 퇴원하였으며, 아이는 미숙아로 태어나 8월 30일날 퇴원하였다고 하였다. 김정희님의 자궁근종은 이후에 상황에 따라 레이저 치료를 하기로 하였다. 집에는 경희의료원 사회사업실에서 연계해준 저소득층 보건소 산후도우미 분께서 오셔서 얼마간 아이를 돌보는데 도움을 받고 있었다. 5월부터 9월까지 정신없이 함께 많은 어려움들을 헤쳐오며 지금까지의 일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다. “이제부터 좋은 일만 있을 거예요” 라며 “이제는 살아가는 희망이 생겼다”고 거듭 감사의 말씀을 해주시는 김정희님을 보며 오히려 많은 것을 느낄 수 있었다.

김정희님과는 꾸준히 연락하며 가끔씩 만나 뵙고 있다. 현재는 월세에 대한 부담으로 SH전세

임대를 알아보고 있으며, 배우자분도 가정을 위해 열심히 일을 하고 있다고 하였다. “아이가 복덩이 인 것 같아요” 라고 말씀드리자 해맑게 웃으시는 김정희님을 보며, 앞으로 언제나 좋은 일만 있길 기대해 본다.

9남매의 러브하우스

원광장애인종합복지관 | 이 보 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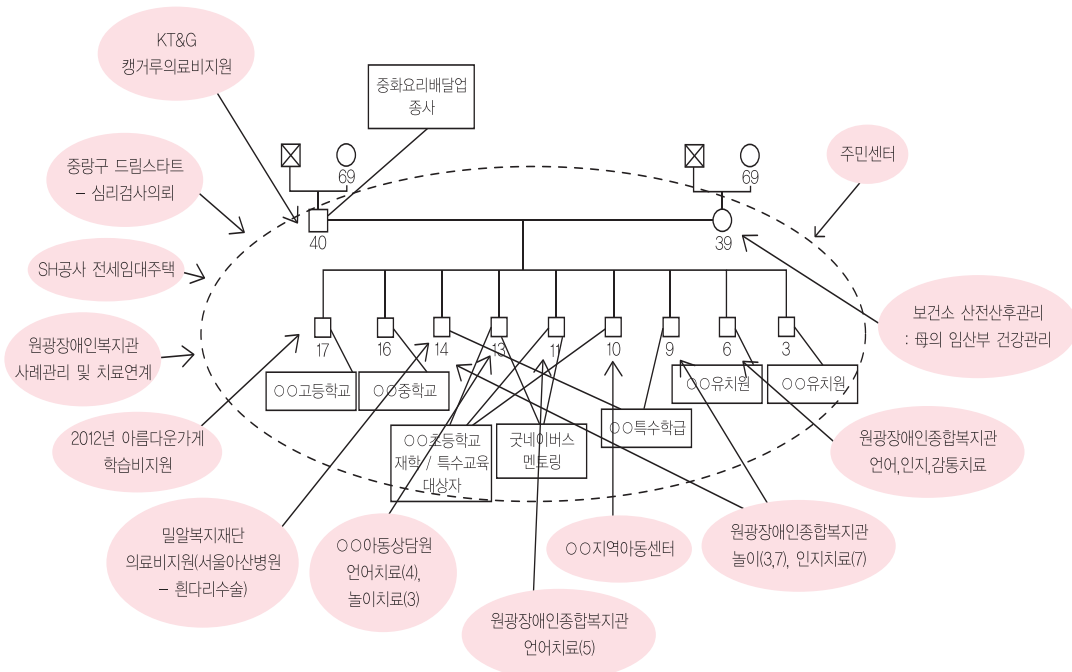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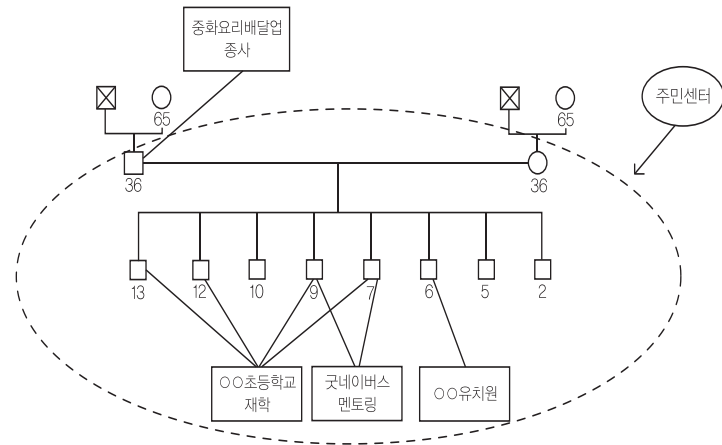
■ 사례개요

대상자명	김미나(가명)	성별/나이	남 /43	보장구분	기초생활수급
주거형태	월세/반지하	가구유형	장애/다자녀가구	가구원수	11인
건강상태	건강	월소득	정부보조금, 근로소득		

■ 사례목표

주요문제	- 지역사회 내 공식적, 비공식적 자원이 전무한 상황 - 장애가 의심되는 자녀들의 등록, 치료 및 학습적인 개입이 시급한 상황
단기목표	- 발달지연인 아동들을 대상으로 정확한 발달 수준 확인 및 발달 수준 향상을 위한 치료 개입. - 외부자원 연계를 통한 지원을 받아 의료비 부담 감소.
장기목표	- 지역사회 내 공식적, 비공식적 자원연계를 통한 가정의 안정적인 생활 - 장애, 비장애 자녀들의 각 연령에 맞는 성장발달.

■ 생태도의 변화



■ 좌충우돌! 9남매의 요란한 하루

9남매의 웃음 소리가 끊이지 않고, 아이들의 수만큼이나 다양한 꿈이 자라고 있는 행복한 집일 거라 생각했었다. 하지만, 수연(가명, 둘째, 16세)이네 집에 발을 들여 놓는 순간, 즐거운 상상은 멈추게 되었다. 열한 명의 가족이 부대끼며 살기에는 턱 없이 비좁은 집과 장애를 가진 동생들까지.. 둘째 수연이의 앞날이 쉬이 그려지지 않았다.

고등학교 동창으로 만난 수연이네 부모님은 이십 대 초반의 어린 나이에 결혼해 가정을 꾸렸다. 예기치 않게 첫 아이를 유산한 후, 아이가 생길 때 마다 축복이라 여겼던 부부. 그렇게 9남매를 두었고, 지금껏 부부는 자라나는 아이들을 보는 낙으로 살아왔다고 한다. 하지만 그 기쁨이 언젠가부터 깊은 한숨으로 바뀌었다. 점점 비좁아지는 집에 감당하기엔 벅찬 생활비...

10남매가 함께 살아갈 현실은 그리 녹록치 않았다.

이 가정을 처음 알게 된 건 셋째(14세)의 시설 입소와 관련된 상담을 하면서부터였다. 첫째, 둘째와 달리 또래아이들과 성장이 달랐던 셋째의 양육에 어려움을 느끼면서 시설에 입소시키고자 희망했다. 12년동안 집밖의 경험이 전무한 상황으로 학교입학을 적극 권유했으며 이때부터 다른 자녀들의 상황도 파악하게 되어 가족 전반의 사례관리가 시작되었다.

그 당시 미취학아동이었던 일곱째 자녀는 밀알복지재단의 지원을 받아 장애등록을 비롯해 치과진료 등의 의료적인 지원이 진행됐으며 현재까지 재활치료를 지원받고 있다. 여덟째 자녀는 시군구의 영유아검진비 지원으로 장애등록을 하였고 서둘러 재활치료를 연계하여 본 관 및 인근 사설기관에서 치료를 진행 중이다.

작년 셋째와 일곱째 자녀는 인근 특수학교에 진학해 사회생활 경험의 확대가 이뤄졌으며 활동보조인 연계를 통해 다양한 경험의 기회와 안전한 보호를 지원했다. 또한 양쪽으로 다리가 휘어 걸음걸이가 불안정했던 세째는 밀알복지재단의 의료비 지원을 받아 흰 다리 교정술을 올해 2월에 받았다. 입원하면서 수연이(둘째)가 동생의 간병을 하면서 많이 힘들어했지만 휘었던 다리가 많이 펴졌으며 걸음걸이가 많이 안정적으로 변하니 부모님 뿐 만 아니라 수연이도 굉장히 기뻐하며 셋째의 건강관리에 더 관심을 갖는 모습을 보였다.

현재 아버지의 비정기적인 수입과 기초생활수급비, 그리고 셋째, 일곱째, 여덟째의 장애수당으로 생계를 꾸려가고 있지만, 열한 명 가족의 생활비로 턱 없이 부족한 상황이다보니 이사 갈 꿈을

아예 생각조차 못했다. 가족이 살고 있던 집은 SH공사 전세임대주택 지원을 받아 두 집을 동시에 사용했지만 한 집당 열 평 남짓의 방 두 개짜리 반지하이다. 대부분 생활을 한 쪽 방에서만 생활하고 있다 보니 아이들은 달 디딜 틈 없이 빼곡하게 생활했다. 동생들보다 큰 수연이는 발조차 편히 뻗을 공간이 없어 새우잠을 자곤 한다.

하지만 살고 있는 집도 곧 계약이 만료되어 이사를 가야하는 상황에 처해있다. 중랑구 뿐만 아니라 서울 안에서도 집을 구하고 있지만 높은 집값과 9명의 자녀가 생활하기에 넉넉한 집을 구하기 힘들어 원래 고향이었던 대구에도 집을 구하러 내려가곤 하셨다. 자녀들을 위해서는 서울에서 사는 것이 맞지만 현실적으로 어렵다보니 아이들에게 미안할 뿐이다.

■ 언제나 고맙고 미안한 아이들에게..

지난해 고등학교에 들어간 장남, 의젓한 둘째 수연이, 그리고 셋째, 넷째, 다섯째, ...그리고 막내까지... '가족'이라는 울타리 안에서 서로 챙겨주고 의지하며 밝고 건강하게 커가는 아이들의 모습은 부부의 막막한 현실을 이겨내는 힘이었다. 특히 누구보다 아빠, 엄마의 마음을 헤아릴 줄 아는 속 깊은 둘째 수연이를 생각하면 고맙고도 미안하다.

“둘째 수연이는 한창 공부하고 연예인 좋아할 나이에 동생들 돌보느라 바쁜 모습을 보면 안쓰럽죠.. 하고 싶은 것도 많을 텐데 형편이 어려워 학원에도 못 보내는게 가장 미안하고요. 다른 또래처럼 이것 저것 사달라고 하지 않고 아무 말도 하지 않는 수연이를 보면 너무 일찍 철이 든 것 같아 더욱 미안해져요.”

지난 8월 말, 아버지로부터 한 통의 전화를 받았다. 계속 집을 알아봤지만 서울에서는 도저히 구하기 어려워 대구로 알아보러 다녔으며, 마침 좋은 집이 나와 바로 대구로 내려간다는 전화였다. 헤어짐을 준비할 겨를도 없이 바로 내려가 새로운 보금자리에서 시작하신다는 아버님의 말씀을 듣고 한편으로 아쉬웠지만, 아버님 스스로 내린 선택과 결정을 지지하며 응원할 것을 약속했다.

아버님의 전화를 마치고 바로 생각이 나는 건 둘째 수연이었다. 아침에 일어나서 잠자리에 들기까지 하루하루 동생들과 전쟁 아닌 전쟁을 치르는 수연이는 힘이 부칠 때 마다 콧노래를 흥얼거린다. 지금은 반 지하 10평의 무대에서 동생들을 관객 삼아 부르는 노래이지만, 미래에는 더

큰무대에서 화려한 조명을 받으며 수많은 관객 앞에서 부르고 싶다는 수연이의 꿈은 ‘멋진 가수’가 되는 것!

지금보다 더 넓은 집으로 이사 가고 싶고, 또래 친구들처럼 온 가족이 함께 손 붙잡고 놀이동산에도 가고 싶고, 동생들이 다치지 않았으면 좋겠고, 커서 가수가 되어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고 싶다는 내용의 노래... 가만 들어보니 수연이는 그 동안 표현하지 못했던 모든 소망들을 노래에 실어 부르고 있었다.

지금보다 더 넓은 집으로 이사 가고 싶다는 수연이의 소망이 첫 번째로 이뤄지게 되었다. 이처럼 비록 지금의 현실이 막막할 지라도 언젠가 꼭 이뤄지리라는 믿음과 함께 그곳에 내려가서도 항상 씩씩한 수연이로 남아있기를...

가족의 꿈이 담긴 노래가 현실이라는 이름으로 눈앞에 펼쳐지는 그 날이 하루 빨리 다가오길 소망해 본다.

함께 하는 삶

유린원광종합사회복지관 | 장 동 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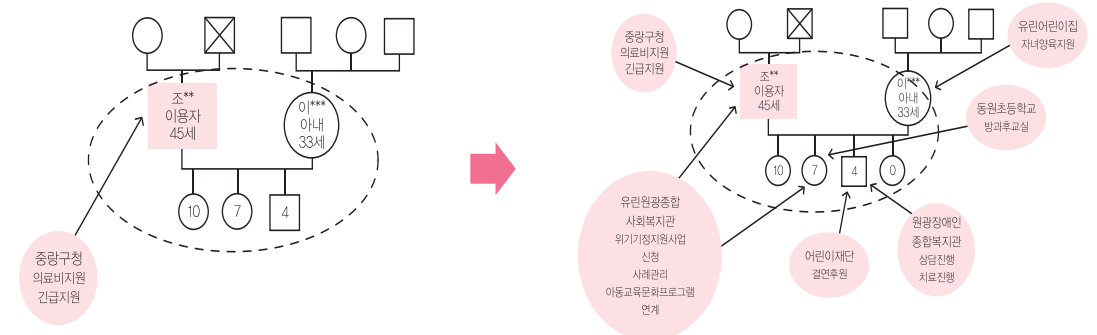
■ 사례개요

대상자명	조일남(가명)	성별/나이	남 / 44	보장구분	차상위
주거형태	반지하 월세	가구유형	부부중심	가구원수	5인
건강상태	양호	월소득	본인 근로소득 40만원/월		

■ 사례목표

주요문제	- 주거지 문제 - 자녀 양육 문제
단기목표	- 체납된 월세에 대한 지원을 통한 주거 안정 - 어린이집 연계 안정적 보육 지원 - 자녀에 대한 치료적 상담 정보 제공 - 방역서비스로 주거 환경 개선 - 자녀 교육/문화 프로그램 연계
장기목표	- 안정된 주거지 확보 - 안정된 자녀 양육 환경 확보

■ 생태도의 변화



■ 나의 희망 가족의 행복

2015년 1월 조일남(가명, 45세)님은 복지관을 방문하였다. 직장을 잃고 일용직 전단지 배포를 시작한지 2년이 지났고 최근 불황으로 인해 일거리가 줄고, 소득이 적어지면서 경제적인 어려움이 계속되었다. 급기야 월세가 체납되어 집주인과 불화가 생겼고, 쫓겨나듯 살던 집에서 나오게 되었다고 하였다.

초겨울의 쌀쌀한 날씨속에서 아내와 어린 두 아이, 아내의 뱃속에 있는 막내 아이까지 길거리에서 생활하게 될 절망적인 상황 직전 겨우겨우 보증금이 적은 집을 구해 이사를 하였지만 집안 사정은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았다. 일거리는 점점 줄어가고... 뱃속의 아이는 커가고.... 두 자녀의 양육까지... 조일남님의 힘든 생활은 계속되어 갔다. 월세와 공과금이 계속해서 밀리는 생활이 계속되자 집주인이 퇴거를 요청하였고 절망적인 상황에서 조일남님은 구청을 찾아가서 긴급지원을 신청하게 되었다.

구청에서 긴급지원을 받게 되었지만 체납된 월세와 공과금을 해결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조일남님은 마지막 희망을 찾아서 유린원광종합사회복지관을 찾아왔다.

담당 사회복지사에게 사례관리에 대한 설명을 듣고 상담을 진행하였다. 사회복지사와 이용자가 함께 계획하고 실행해 나아가는 프로그램이라는 설명을 듣고 어려운 상황을 극복하기 위한 방법을 찾기 시작했다.

그 첫 번째 목표로 '안정된 주거지 확보'를 설정하였다. 이를 위한 하위목표로 월세 체납과 생계비를 지원 받을 수 있는 '위기가정지원사업 신청'을 하기로 하였고, 이를 위해서 담당자는 신청 작업을 진행하고 조일남님은 '신청 작업을 위한 상담협조'를 하기로 하였다. 동시에 자녀들의 양육 문제에 대해서도 상담을 받았다.

두 번째 목표로 '양육 지원'을 목표로 설정하였다. 이를 위한 하위 목표로 자녀 어린이집 연계와 장애 관련 상담 정보 제공을 하기로 하였다. 어린이집 연계를 위한 실행계획으로 담당자는 연계 가능한 어린이집에 대한 정보 제공과 등원 신청을 진행하고 이용자는 어린이집 상담과 등원 지원을 하기로 하였다. 장애 관련 상담 정보 제공을 위한 실행계획으로 담당자는 장애아 관련기관에서 정보를 수집·제공하고 이용자는 상담 협조와 치료 진행을 하기로 하였다.

대상자와 합의한 첫 번째 목표와 두 번째 목표를 위해서 담당 사회복지사와 조일남님이 꾸준히 노력하여 위기가정지원사업 지원을 받아 체납된 월세가 해결되었고 장애가 의심되었던 셋째에 대해서 원광장애인복지관의 상담과 치료에 대한 정보를 제공받아 직접 전문가와 상담을 하고 치료예약까지 하였으며, 이를 통해서 아이의 상황에 대해서 이해하게 되면서 전보다 더 관심을 두고 노력을 하게 되었다. 또한 만삭의 몸으로 어린 자녀를 양육하는데 어려움이 있던 아내와 일을 해야 하는 조일남님의 어려운 상황 속에서 유린어린이집 담당자와 논의하여 유린어린이집에 등원할 수 있게 됨에 따라서 아이는 안정적인 보육이 가능해졌고, 아내는 자녀양육 부담을 줄일 수 있게 되었다.

사례관리를 통해 한결 안정적인 생활이 가능해 지면서 지금까지 미뤄왔던 일들에 대해서 돌아볼 수 있는 여유가 생겼다. 사례관리 담당자와 다시 상담을 진행하여 우선 곧 태어날 아이를 위해 좀 더 편안하고 깨끗한 양육환경을 만들기 위한 계획에 대해서 이야기 하였다. 동시에 올해 초등학교에 입학하여 적응에 어려움을 겪고 있던 둘째 자녀에 대한 양육지원에 대해서도 이야기하였다. 상담을 진행 한 후 담당 사회복지사와 새로운 목표를 위한 사례관리 목표를 세웠다.

첫 번째 목표로 '주거지 환경 개선'을 설정하였다. 이를 위한 하위목표로 '주거지 위생상태 개선'을 하기로 하였고, 담당자는 방역서비스를 연계하고 대상자는 방역서비스 신청과 방역 진행에 협조하기로 하였다. 두 번째 목표로 '양육 지원'을 설정하였다. 이를 위한 하위목표로 '아동 프로그램 연계'를 하기로 하였고, 담당자는 둘째 자녀가 원하고 있는 피아노 프로그램을 수강할 수 있게 서비스 연계를 하고 대상자는 자녀가 지속적으로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도록 격려하기로 하였다.

합의된 첫 번째 목표와 두 번째 목표를 위해서 함께 노력한 결과 주거지 방역을 할 수 있게 KT&G복지재단 방역서비스가 연계되었고, 둘째 자녀는 유린원광종합사회복지관의 아동 교육·문화 프로그램 중 피아노 교실을 이용할 수 있게 되었다.

열심히 생활을 하던 조일남님 가족에게 얼마 후 좋은 일이 생겼다. 살고 있던 집 주인할아버지가 자녀가 많은 조일남님의 사정을 딱하게 여겨서 자신이 살던 집을 적은 월세로 입주할 수 있도록 해 주었다. 전보다 넓고 쾌적한 공간으로 이사를 한 조일남님 가족은 지금도 건강하고 씩씩하게 살고 있다. 두 번에 걸쳐 복지관의 사례관리 프로그램을 진행해서 가지고 있던 어려움이 한 가지 한 가지 해소되고 생활이 안정이 되면서 가족들에게 활력이 생겨났고 건강하고 이쁜 아이를 출산하였다. 조일남님이 어려웠던 시기를 극복하면서 일거리도 차츰 생겨나 경제적으로도 어느 정도 안정된 상황이 되었다. 절망적인 상황에서 희망을 볼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 배려해 주었던 많은 분들 감사해하며 언젠가는 희망을 나누어 줄 수 있는 가족이 되겠다는 다짐을 하신다.

심리, 경제적 문제를 가진 환자에 대한 지역사회와의 협력

서울특별시북부병원 | 김 준 희

■ 사례개요

대상자명	조명순(가명)	성별/나이	여 / 75	보장구분	건강보험
주거형태	자가(가족명의)	가구유형	독거	가구원수	1인
건강상태	복합질환	월소득	노령연금20만원, 장애수당 2만원, 기타등		

상기 환자는 숨이 가쁘고 머리가 아프며 어지럽고 붓는다는 등의 신체적 증상을 호소로 중랑구 보건소를 통해 301네트워크로 의뢰되었다.

환자는 독거노인으로 dyspnea(내과) 증상을 치료하는데 있어서 의료비 부담이 있었고, 미약한 정서적 지지체계로 인해 우울증상이 있는 상태였다. 이에 내과 및 정신과 진료 연결하여 전반적인 건강상태에 대한 파악 및 인지, 정서, 성격, 사회적응 정도 검사 실시하여 정신과적 치료개입 후 환자 의사결정에 의해 사례 종결하였다.

〈의뢰경위 및 문제영역〉

1) 의뢰경위 dyspnea(내과)와 관련해 기질적 문제인지, 정신과적 문제인지에 대한 판단 목적으로 중랑구보건소에서 consultation(진찰 의뢰)함.

2) 문제영역

- 질환에 대한 이해 없고, 의료비 지불능력 없음
- 정서적 지지체계 미약

〈의료적 상황〉

주진단명 : dyspnea(내과)

major depressive disorder(정신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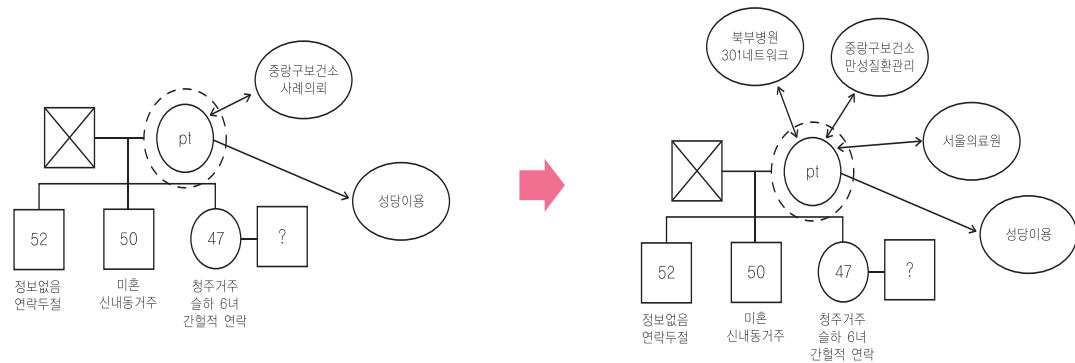
부진단명 : somatization disorder(정신과)

- 2011년 옆구리에 혹이 있어 부신 등 떼어내는 수술
- 2014년부터 치매약 복용중. 자주 깜빡깜빡하는 증상, 2014년 10월 치매검사결과 27점으로 정상임.
- dyspnea(내과) : 심장에 문제가 있어서 숨이 차다는 소견있었으나, 치료를 위해 병원 이용은 하지 않음.
- 301네트워크 의뢰후, CT 검사 결과상 호소하는 dyspnea(내과)의 원인을 찾기 어려움. echo 추가평가고려. 이후 다른 이상 없어 정신과 협진하여 심리검사 실시하였고, 우울증상으로 투약함.

■ 사례목표

주요문제	• 질환에 대한 insight 없고, 의료비 지불능력 없음 • 정서적 지지체계 미약
단기목표	• 내과, 정신과 진료 및 의료비 지원 • 지역 자원 활용하여 대인관계 형성 유도
장기목표	• 우울증 치료 유지 • 독거노인가사지원서비스 연결 등으로 외로움 해소

■ 생태도의 변화



〈개인력〉

대구 구미 출생. 3남1녀중 셋째(오빠2-사망, 남동생1-대구거주)

결혼후 서울로 상경하였고, 청량리에 거주하면서 경제적 부양자 역할함.

남편의 폭력으로 임신 6개월에 자살 시도 하였고, 출산이후에도 1회 더 자살 시도 하였다고 함.

남편과 사별(30년전)한 이후 다양한 직종에서 일하며 자녀양육 및 생계 유지함.

〈가족사항〉

- 남편 : 83년도 사별. 환자에게 폭력적이었음.

- 첫째아들 : 사업실패후 10년 이상 연락두절 상태. 정보없음.

- 둘째아들 : 미혼. 신내동거주.

- 딸 : 47세. 청주거주. 슬하에 6녀 두었고, 자녀 양육으로 환자 케어에 어려움 있음. 남편 에어콘 설치기사.

- 부친 : 환자 5세경 사망.

- 모친 : 환자 환갑후 사망.

〈사회경제적 사항〉

- 동거구성원 : 독거

- 주거형태 : 자가(딸 명의 빌라), 11평

- 주수입원 : 노령연금 20만원, 장애수당 2만원,

기타(주민센터에서 4개월째 쌀 20kg 지원, 월 1회 반찬 및 라면 등 지원)

- 사보험 : 없음

- 가족간 상호작용 : 아들(단절), 딸(간헐적 소통)

- 사회적지지망 : 장애 6급

- 종교 : 천주교

- 과거직업력 : 파출부, 식당, 행상(넥타이, 대나무방식), 죽장사, 약장사(한약), 참기름장사

- 사회적응 및 수행력 : 외부활동 전혀 없이 고립된 상태로, 집에서 잠만 잔다고 표현함.

■ 개입과정

1) 301네트워크 대상자 등록 및 치료지원

: 보건소 방문간호사 의뢰후 환자 면담하여 301네트워크 대상 가능여부를 평가하였다. 이후 내과 진료 및 검사로 건강상태 파악하였으나 이상소견 없어, 정신과에서 치료를 시작하였다. 환자가 호소하는 신체적 증상에 대한 의학적 근거가 모호하고 다소 과장된 측면이 있어 진단적으로 'somatoform disorder'에 해당. 자신의 정서적인 고통이나 심리적인 문제를 신체적인 증상으로 전환시킴으로 문제화를 외재화 시키려하고 있으나 이러한 전환 증상이 현재 심리적 어려움을 효과적으로 처리해 주지 못하고 있어 심한 우울감과 불안을 경험하고 있는 모습이었다. 지속적으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격려하며, 301네트워크를 통해 의료비 전액 및 차량이동 서비스 지원하였다.

2) 정서적 지지체계 미약

: 남편과 사별 후 혼자서 자녀들을 힘들게 양육하였으나, 현재 독거로 생활하고 있고, 자녀들 끼리도 사이가 좋지 않은 상황인 것이 힘든 상태였고, 혼자서 많이 울고 화가나서 가슴이

희망을 전하는 손길

서울시립대학교종합사회복지관 | 홍 한 울

■ 사례개요

대상자명	미영(가명)	성별/나이	여 / 62	보장구분	차상위
주거형태	LH임대주택	가구유형	부부중심	가구원수	2인
건강상태	허약	월소득	본인 근로소득		

■ 사례목표

주요문제	- 배우자의 신체·정신건강 문제로 인한 근로 어려움 - 불안정한 근로환경과 낮은 임금으로 공과금 체납 및 생활비 부족
단기목표	- 희망온돌 긴급지원금으로 체납된 임대료 지원 - 기본적인 반찬 등 식료품이 없는 상황 해결을 위한 생계비 지원
장기목표	- Ct의 안정적인 근로환경 조성(일자리 연계) - 배우자의 정신건강 상담 및 장애등급신청 지원

답답하다고 하였다. 간헐적으로 연락하는 딸 근처에 거주하는 것에 대해 말씀드렸으나 자녀에게 부담을 주기는 싫다고 거부하였다.

예전에는 활발한 성격이었으나 작년부터 밤낮 구별없이 잠이 너무 많이 오고, 이로 인해서 사람들을 만나기 어려운 상황임을 호소하여 약복용을 통해 증상 조절이 가능함을 설명하였다.

이후 증상 조절되면 성당활동에 도전하기로 하였고, 이웃과의 소통을 원할 경우 복지관 연계하여 독거노인가사지원서비스 연결하기로 하였다.

■ 종결 및 사후관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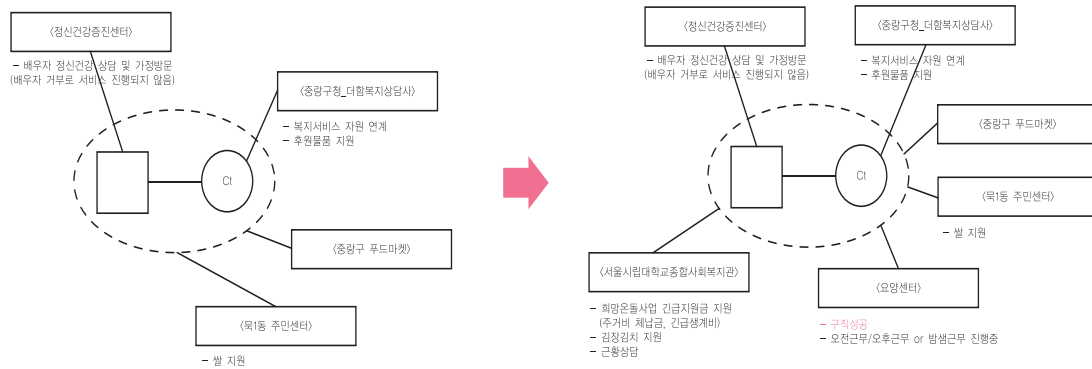
내과, 정신과 외래 및 검사 5회 정도 진료 받는 동안 약부작용 및 거주지에서 병원까지 이동의 어려움을 호소하였으며 비용이 발생하더라도 거주지에서 교통이 편리하고, 오랫동안 이용한 서울의료원으로 진료를 다니기 희망하셔서 301네트워크 사례 종결하였으며, 의뢰기관인 보건소 담당자에게 만성질환에 대한 지속적 관리 되도록 의뢰하였다. 사례종결 3개월 후 사후관리 차원에서 환자에게 안부전화하였고, 서울의료원에서 f/u 유지 잘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 평가

dyspnea 치료 및 의료비 부담 해소를 위한 치료비 지원 등의 의료적 개입, 환자의 지지체계 강화로 외로움 해소 등의 사회복지적 개입, 종결이후 지역사회로의 재의뢰 과정을 거치며 환자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었다고 할 수 없으나, 현재 개선되어야 할 바를 계획해 보고, 직면된 문제를 해결해 가는 방법을 지역사회와 공동으로 수행하였다.

북부병원 301네트워크에서의 사례는 종결하였지만 앞으로도 꾸준한 치료가 필요한 상황이며, 환자가 독립적 생활 유지 등 해결해 나가야 할 일이 많이 남아 있는 상황이었지만 환자의 치료의 지가 보이고 현재 치료 유지 중으로 치료가 지속될 수 있도록 환자를 격려하는 것이 가장 중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 생태도의 변화



■ 지역 내 취약·위기계층 발굴 및 긴급지원 서비스 연계를 통한 위기상황 해소

내담자의 첫 인상은 평범했다. 평소 상담하던 다른 내담자들과는 다르게 담담하고 조심스러운 태도에 처음 내담자를 연계해 주었던 구청 소속의 상담사 선생님의 다급한 연락이 무색할 정도였다. “저보다 어려운 사람이 많을 텐데...”를 반복하며 지원에 대해 적극적인 의사 표현도 꺼려하는 내담자는 몇 번을 머뭇거리다 어렵게 자신의 속사정을 털어 놓았다.

심장병으로 신체가 허약하여 근로 능력이 없는 배우자와 함께 생활하며, 내담자는 시급 3~4천 원의 일당을 받고 근로하며 생계를 유지해 왔다고 하였다. 그렇게 벌어드린 수입은 한 달에 3~40만원 남짓. 2인의 성인이 생활하기에는 턱 없이 부족한 돈이었고 생계위협은 매일매일 계속되었지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었다고 이야기했다. 먹을 수 있는 반찬을 살 수 있는 여유도 되지 못해서, 된장과 고추장만으로 밥을 먹었는데 이제 이마저도 다 떨어져 무엇을 먹고 살아야 하는지 모르겠다며 내담자는 힘없이 웃었다. 어렵게 당첨된 임대주택도 임대료를 내지 못해 계약이 해지될 위기에 있다고 하였다. 그래도 다행히 중랑구청 통합사례관리사를 만나게 되어

내담자는 처음으로 자신의 어려운 사정을 이야기할 수 있었고,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다른 방법을 찾게 되었음을 이야기 했다.

“이 곳에 찾아오는 것도 사실 많이 망설였어요. 괜히 제 치부를 드러내는 것 같기도 하고... 주민센터에 찾아가서 어렵게 사정이야기를 했는데 돌아오는 말은 ‘지원 대상이 아니어서 도와줄 수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 말을 들으니 그 자리에 있는 제 자신이 너무 창피해서 얼굴을 들 수도 없었어요.”

내담자는 여기까지 이야기를 하고, 그 동안 간신히 유지해 온 마지막 무엇이 끊긴 듯 눈물을 터뜨렸다. 삶의 위기상황에서 무엇에 의지하고 도움을 받아야할지 모르는 막막한 가운데서 홀로 외롭게 버텨왔을 인생의 무게가 느껴지는 순간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담자는 “저보다 힘든 사람이 많을 텐데 제가 도움을 받아도 될까요?”하며 불안감을 표현했다.

내담자를 안심시키며, 지금 당면한 여러 문제 중에 가장 긴급하게 해결해야 하는 사항이 무엇인지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었다. 내담자는 아무래도 ‘퇴거위험을 해결’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어렵게 당첨된 집이기도 하지만, 당장 쫓겨나면 갈 곳이 없어 밤마다 불안함에 잠을 설친다고 표현했다. 내담자에게 지금까지 밀린 임대료와 관리비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요청하고, 희망온돌 지역기금으로 이를 지원할 수 있음을 이야기하였다. 내담자는 ‘지원이 된다.’는 말에 정말이냐를 몇 번이고 말하며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다.

“저는 해당사항이 없다고 생각했어요. 기대하지도 않았는데 막상 지원받을 수 있다고 하니 믿어지지 않네요. 아, 정말 감사합니다!” 상담이 끝나고, 내담자는 조금은 힘이 실린 발걸음으로 집으로 돌아가며 계속 고맙다는 이야기를 되풀이했다.

이후 내담자에게 증빙서류를 전달받고, 기관 내부 사례회의를 통해 주거비는 물론 생계비 지원까지 추가로 결정되었다는 소식을 알렸다. 수확이 너머로 내담자의 안도와 기쁨의 마음이 흘러들어왔다. ‘고맙다’는 말 한 마디로도 내담자의 마음을 느끼기에는 충분했다. 내담자의 어려운 사정을 도와줄 수 있는 공적제도가 없어 구청 통합사례관리사도 답답해하던 찰나에 희망온돌사업으로 주거비와 생계비를 지원받아 내담자가 다시 용기를 가졌다고 했다. 구청 희망복지지원팀에서도 서비스 연계 이후에도 내담자와 연락을 지속하며 지지와 격려, 자립하기까지의 후원물품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 위기상황 해소 이후 안정을 찾은 가정, 그리고 새롭게 피어나는 희망

한 달의 시간이 흐르고, 내담자의 근황을 확인하기 위해 연락을 드렸다. 내담자는 전보다 훨씬 힘이 있는 목소리로 전화를 받았다. 그 동안 열심히 구직활동을 한 결과 새로운 일자리를 얻었다는 소식을 전했다. 일이 고되고 힘들지만, 가정의 생계를 책임지는 입장에서 최선을 다하겠다는 의지를 보이며 희망온돌사업이 자신이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고 고맙다는 인사를 전했다.

내담자의 자립을 축하하며 지금처럼 건강하게 생활하실 것을 기원하며 전화 상담을 종결했다.

누구에게나 어려운 순간은 찾아오지만 그 순간, 도움의 손길을 내밀어 줄 사람은 많지 않다. 그 잠깐 사이에 개인은 견잡을 수 없는 빈곤의 나락에 떨어지기도 하고, 잘못된 선택을 하기도 한다. 거대한 사회적 위험에서 나약할 수밖에 없는 개인. 그 개인이 어렵게 내민 손이 어디 있는지 살피고 따뜻하게 잡아주는 것이 희망온돌사업, 그리고 그 사업을 하는 실무자와 지역기관들이 해야 하는 역할이 아닐까 싶다. 그 손을 잡고 놓지 않았을 때, 힘이 없던 손에 생명이 느껴지고 그 생명으로부터 희망이 전달됨을 기억하며 오늘도 내담자와의 상담을 시작한다.

IV 희망수기

1 가족이 함께 행복을 만들고 나눔을 실천하다 |

중랑구건강가정지원센터 맹영숙(가족봉사단)

2 봄이 오다... | 면목4동 주민센터 김민중

3 변화의 시작 : 접촉의 '횃수' 그리고 관심의 '깊이' |

상봉1동 주민센터 한민정

4 움츠렸던 어깨에 희망의 날개를 | 신내종합사회복지관 이승환

5 중랑구 거주 네팔지진피해자가가족 지원을 위한 긴급모금활동 |

중랑구다문화가족지원센터 배지숙

6 허리펴고 기지개 쭉!! | 면목종합사회복지관 김정연

가족이 함께 행복을 만들고 나눔을 실천하다

가족봉사단활동을 통해 이웃 사랑을 실천하고,
건강한 가족문화를 형성하여 가족이 함께 성장하는데 밑거름이 됨

중랑구건강가정지원센터 | 가족봉사단 맹 영 숙
(담당실무자 : 길 재 연)

■ 우리 가족 첫 발걸음

아이들이 하루가 다르게 자라나는 모습을 보면서 아이들과 함께 공유할 수 있는 일과 시간들이 점점 줄어드는 것이 아쉬웠다. '가족과 함께 할 수 있는 보람 있는 일은 없을까?' 라는 생각을 하게 되던 중 가족이 함께 열심히 거리 정화 봉사활동을 하고 있는 어느 한 가족봉사단을 만나게 되었다. 가족이 함께 도와가며 봉사를 하는 모습을 보니 내 마음이 따뜻해진다. 그 순간 '바로 이거다!' 라는 생각이 들면서 머릿속으로는 벌써 우리 가족이 봉사하는 모습도 그리고 있었다. 이를 계기로 가족에게 의견을 물었고 모두의 찬성에 힘입어 「행복만듬이」라는 중랑구건강가정지원센터의 가족봉사단에 가입을 하게 되었다.

■ 이웃 사랑 실천의 즐거움

작년 9월 다문화 축제에서 여러 나라 전통놀이 체험을 할 수 있는 부스를 맡아 봉사활동을 하게 되었다. 국제결혼의 증가로 우리나라에 온 많은 외국인들과 만날 수 있고 대화도 할 수 있는 좋은 기회였다. 또 다양한 나라들의 공연도 볼 수 있고 전통 놀이와 의상도 입어보는 체험도 할 수 있어 다문화가족과 여러 가족봉사단에게도 즐거운 시간이었다.

다문화축제를 통해 다문화가정을 이해하고 서로 대화를 나누면서 작게나마 소통을 할 수 있어 보람을 느꼈다. 그리고 내 아이들에게도 다문화가정 친구들도 나와 다르지 않은 우리의 이웃이라는 것을 느끼게 되는 뜻 깊은 시간이 되었을 것이다.

■ 가족 공감, 그리고 마주보다

처음 봉사활동을 시작할 때는 일요일이면 늦잠을 자기 일쑤였고 폭 쉬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우리 가족이 꾸준히 잘 할 수 있을지 걱정과 우려가 먼저 앞선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일요일 아침 일찍 일어나는 것이 쉽지만은 않았을 텐데도 가족 모두가 당연히 해야 될 일이라 생각하며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모습을 보여 내심 뿌듯했다. 특히 가족봉사단이라도 아빠들의 참여가 저조한데, 우리 남편은 아이들과 함께 할 수 있어 기쁘다며 누구보다 열심히 활동하고 있어 무엇보다 감사하고 자랑스럽다. 당연히 이런 아빠의 모습을 본 아이들도 아빠를 더 자랑스럽고 좋아하지 않을까? 항상 티격태격 싸우는 아들과 딸이지만 봉사활동을 할 때면 서로 도와가면서 힘을 합쳐 열심히 하는 모습을 보니 대견스럽기도 하다.

봉사활동을 통해 우리 가족 모두 하나가 되어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이 많아서인지 우리 가족은 사춘기인 아들과 딸 모두 대화를 많이 나누며 서로의 마음을 잘 이해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 나에게 가족봉사단 '행복만듬이' 는...

여러 행사 부스 운영, 경로당 청소, 캠페인, 거리 정화 등 다양한 봉사활동을 하면서 힘들고 지칠 때가 많다. 하지만 그날그날의 봉사활동을 마치고 나면 언제나 뿌듯함과 보람을 느끼고 더욱이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하기에 가슴이 따뜻해지고 행복해짐을 느낄 수 있어 항상 감사하다. 무엇보다도 백 마디의 말보다 가족과 함께하는 봉사활동의 경험이 아이들에게 소중한 가르침이 될 것이라 생각한다.

앞으로도 우리 가족은 가족봉사단으로서 작은 힘이나마 누군가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면 꾸준히 활동을 하고 싶고 그 속에서 행복을 느끼며, 이웃들과 사랑을 나누고 싶다.

가족봉사단 '행복만듬이' 모두 파이팅!



봄이 오다...

노숙과 알콜중독 문제를 가진 지적장애인과 돌봄과 생활에 지친 가족들의 수고를 나누다.

면목4동 주민센터 | 김 민 중

■ 72세의 어르신 이야기

오늘도 연락이 왔다. 둘째 아들은 올해 나이가 40세로 지적장애가 있어 일은 못하지만 술 마시는 것을 좋아해서 과음으로 병원 응급실에 실려가 연락이 오는 경우가 있다. 하지만 오늘은 경찰에게서 연락이 온 것이다. 아들이 공중전화박스에 쓰러져 있었다. 전화를 받고 가니 며칠 집에 들어오지 않고 노숙을 해서인지 옷은 더럽고 몸은 씻지도 않아 땀과 때로 인하여 까만 얼굴에 더러운 냄새를 풍기고 있었다.

경찰은 아들이 알코올 중독이 있는 것도 같으니, 치료와 가족의 보호를 부탁했다. 아들의 상태를 전부터 잘 알고 있지만 나(부친)는 올해 72세로, 나이를 먹어감에 따라 아들을 돌보기가 점점 힘들어 지고 있다.

나는 기력이 점점 줄어들고 아들이 술을 마시고 집에 들어오지 않고 노숙을 하는 날이 많아지면서 아들 문제에 대해 동주민센터 사회복지사에게 도움을 청했다. 사회복지사는 보호자의 동의로 시설에 강제 입소를 할 수 있으나 강제 입소 대신 우선 입원치료를 받아볼 것을 권유했다. 아들의 상태를 호전시키는 것을 일차적 목표로 하자고 했다. 더욱이 소개받은 국립서울병원은 병원비가 다른 곳보다 저렴하다고 하니 경제적으로 어려운 나로서는 다행이었다.

119를 이용해서 강제로 국립서울병원에 아들을 데리고 갔으나, 아들이 잤은 노숙으로 정신과 이외의 다른 질병이 생긴 것 같아 입원을 하지 못하게 되었다. 정신과 이외의 다른 과 치료가 가

능한 병원은 서울에는 대학병원이나 대형병원만 가능하다고 하니, 가정형편이 어려운 나로서는 아들의 치료는 포기 해야만 했다.

흔들리는 기력만큼이나 아들에 대한 마음도 흔들리고 있을 때洞주민센터 사회복지사는 아들은 반드시 치료가 필요한 상태이니 우선 '긴급지원'이라는 제도 신청하여 다른 질병을 치료받게 한 후, 정신과 입원치료를 받게 하자고 했다. 그래서 안내 받은 신청서를 받아들이고 저녁에 일을 갔다 들어온 첫째 아들에게 같이 서류를 작성할 것을 말했다. 하지만 첫째 아들은 동생 때문에 힘들었다며 서류쓰기를 거부했다. 그동안 형으로서 결혼도 안하고 나이 많은 나와 장애가 있는 동생을 부양하느라 많이 힘들었나보다. 짝한 녀석이다.

수급자가 되기에는 큰 아들이 벌어 기준을 초과하고 있고 노부와 동생을 돌보기에 지쳐 있어 입원비 걱정도 동생의 치료를 포기하는 큰아들을 원망할 수 없었다.

저도 나도 사는 게 말 그대로 고행인 셈... 이대로 접어야겠다고 생각하고 있을 때洞주민센터에서 걱정이 되어 연락이 왔다. 그래서 직원에게 그간의 사정을 말했다. 고맙지만 이번에는 힘들 것 같다고 하니, 복지 직원은 묵묵히 듣고 나서 다른 방법이 없는지 좀 더 알아보겠다고 했다. 담당 직원도 뵈족한 수가 없겠지 그러고 있는 때에 동 주민센터 직원에게 연락이 왔다.

복지담당 직원은 아들의 입원치료와 관련해서 한달에 90만원이 필요하나, 병원의 지원으로 본인부담 10만원에 치료가 가능한 병원이 있다고 치료를 받게 하자고 한 것이다. 형편이 어려운 나로서는 정말 고마운 말이다. 병원은 지방(충북)에 있어 멀지만 병원에서 차가 와서 둘째 아들을 입원시키는 것도 도와준다고 했다. 덕분에 병원에 아들이 입원하여 정신과 치료와 함께 다른 질환도 치료를 받을 수 있었다.

또한 본인부담 병원비 10만원도 동 복지사가 후원을 알아봐서 지원받을 수 있었다. 둘째 아들의 정신과 치료는 장기간 치료가 필요한 부분으로 병원비가 계속 들어가니 '차상위의료본인부담 경감'이라는 제도를 병원과 연계하여 지원 받을 수 있게 해주었다.

변화의 시작 : 접촉의 ‘횡수’ 그리고 관심의 ‘깊이’

상봉1동 주민센터 | 한 민 정

■ 첫 만남

기초수급자세대가 새로 전입을 왔다. 50대의 혼자 사는 남자분으로 가족력·생활력·병력에 대한 상담내용이 없었다. 그래서 자활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그저 평범한 남자분이시겠지..그렇게 생각했다. 그런데 이분 도대체 연락이 안 되신다. 전화도 안 받으시고, 가정방문을 가도 집에 안 계신다. 문 앞에 방문안내문도 부착했다. 며칠이 지나도 연락이 없다.

어떻게 해야 하나...심각한(?) 고민을 하게 되던 때 쯤 내가 부착한 방문안내문을 들고 체구가 작고 허름한 차림의 남자분이 주민센터로 날 찾아왔다. 무표정한 얼굴로, 뭘 여쭙 봐도 대답이 통명스럽다. 낮설어서 그러시겠지 싶어 최대한 목소리와 표정을 상냥하게 응대를 했는데도 “...” 또는 “몰라요” “왜 그러시는데요?” 딱 이 세 가지 반응이다. 사람에 대한 불신의 벽은 참으로 단단해서 첫 만남에선 도통 깨질 기미가 보이지 않았다.

오늘은 최소한의 안내만 해야겠다 마음을 돌리고 "새로 계약하신 집 계약서 있으시죠? 이번 주까지 제출해주시겠어요?" 주민센터 사회복지담당으로서 꼭 해야 하는 안내였다. 갑자기 벌떡 일어나시더니 뭐가 이렇게 까다롭냐고 하신다. 그리고 그냥 가신다. 멍하니 뒷모습만 바라봤다. 대화는 가능했지만 원활한 소통이 되지 않는 분이였다. 정신 장애등급이 있을 법도 한데.. 다시 한번 상담내용들을 찬찬히 훑어봤다. 미혼에 부양의무자도 아무도 없어 어디하나 도움을 받을 곳도 없다. 안되겠다. 어떻게 사시는 분인지 직접 가서 봐야겠다.

■ 불신

가정방문을 갔다. 그동안 자활사업에 참여하지 않아 생계주거급여가 중단된 상태였다. 그에 대한 안내문을 구청에서 여러 차례 보냈음에도 아무런 반응도 없었다. 전화를 받지 않아 무작정 찾

이제는 한달에 한번씩 정기적으로 병원 면회를 가서 아들을 만나고 있다. 지적장애에 부모의 관심과 돌봄을 받지 못하고 어느새 40줄에 들어서서 내겐 너무나 아픈 작은 아들이 점점 안정된 모습을 찾아가는 것에 대해 말할 수 없는 감사와 놀라운 마음 뿐이다.

고된 삶에 지쳐가던 큰 아들도 크게 내색은 하지 않지만, 동생, 연로한 아버지에 대한 책임감을 나눠 질 수 있다는 사실에 조금은 편안해진 낮빛이다.

기꺼이 들어주고, 나누어준 많은 분들이 있어 감사하다. 가끔 다른 도움이 필요한 건 없는지 안부를 물어주는 동주민센터 직원이 있어 좋다. 외롭지 않다.

■ 사회복지사로서...

큰아들이 벌여 자신과 지적장애2급 동생까지 먹고 살아야 하는 상황에 뭘 어찌해야 할지 어려움을 호소하시던 어르신에 대해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고민이 되었다.

큰 아들의 소득이 법적 보호기준을 초과 하고 있고, 장애에 알콜중독과 가출 노숙등의 복합적인 문제를 가진 둘째아들! 이러한 가족을 돌보는데 지쳐있는 큰아들! 경제적 어려움과 함께 원만하지 못한 가족관계로 이 가구는 매우 지쳐있었다.

일단 작은 아들을 가구에서 분리해서 작은 아들 당사자의 건강관리를 할 수 있도록 돕고, 가구원의 부양부담을 경감시켜 줄 필요가 있었다.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매번 난관은 있었지만 복지 분야에는 함께하는 동료들이 많이 있었다. 자원정보를 함께 찾아주고 고민한 동주민센터 복지 직원, 병원 복지사업팀, 정신건강증진센터, 후원자 등 많은 분들의 도움으로 어르신의 어려움을 덜어 드릴 수 있었다. 가정방문 시 지친 기색으로 걸을 쉽게 내주지 않던 큰 아들이 어느 땐가 보여주었던 얇은 미소도 내겐 큰 힘이 된다.

대상자들이 힘들어도 웃고 사는 세상을 위해 당사자들의 의지에 힘을 보태는 복지사의 삶이 좋다.

아간 길인데 다행히 집에 계신다.

주민센터 담당임을 밝혔음에도 처음 본 사람처럼 물끄러미 보시더니 잔뜩 경계를 하시는 눈치다. 친한 척(?)하고는 슬쩍 안으로 들어갔다. 다가구 주택 옥상 방 한 칸과 작은 부엌이 있는 집이다. 그런데, 세간살이가 하나도 없다. 옷장은 물론이고, 냉장고, TV 심지어 가스렌지조차 없다. 옷가지와 신발 이불이 전부다. “식사는 하셨어요?” 정말 궁금해서 여쭙봤다. 솔직히 ‘여기 드실 것이 있긴 있어요?’ 하고 여쭙보고 싶었다. 대답을 얼버무리신다. 그냥 그냥 먹었다.

혹시 옥탑 방에서 지내시는 건 불편하지 않으신지 묻자 시끄러워서 살수가 없다 하신다. 도로변에 있는 집도 아니고, 주택가라 지금도 이렇게 조용하다 못해 고요한데, 너무 시끄럽다 하신다. 그리고 나한테 물으신다. “이 말소리가 들리지 않아요?”...안 들리는데...아무것도...혹시나 싶어 대화를 잠시 중단하고 가만히 있어보았다. 안 들린다. 지금도 말소리 때문에 시끄러워서 못 견디겠다고 하시는데, 난 아무것도 안 들린다. 그리고 밖에 나가는 게 두렵단다. 사람들이 다 자신의 흉을 보신다고, 버스를 타도 바로 앞 슈퍼를 가도 자신에 대한 험담 소리 때문에 머리가 아프다고 하신다.

무엇보다 가장 큰 문제는 주민센터 사회담당을 안 믿으신다. 분명 며칠 전 사무실에서 뵈었는데도, 처음 본 사람처럼 어디서 왔는지를 여러 차례 물으신다. 어디가 많이 아프시진 않은지, 집 보증금은 얼마이신지 묻자 묘호한(?) 눈초리로 쳐다보신다. 나를 경계하는 의심의 눈초리다.

그리고는 이어 말씀하셨다. 이사를 오고 난 후부터 생계주거급여가 들어오지 않는다고.. 누군가 자신의 통장에서 돈을 인출해가는 것 같은데..혹시 당신이 그런 거 아니냐고...나를 주목하셨다. 이쯤이면 잠시 대화를 접어야 한다는 판단이 섰다. 억울하지만 첫 만남에서 당장 풀릴 의심이 아니다. 어떻게 지내시는지 일단 눈으로 확인했으니 오늘은 일단 돌아가야겠다.

■ 다가서기

우리洞은 분기마다 신내종합사회복지관 사례관리팀과 보건소 정신보건팀, 그리고 방문간호사 선생님, 이렇게 나를 포함 4개 팀이 모여 통합사례회의를 추진하고 있다. 이번 회의 때 나는 사례

안전으로 이 분을 선정했다.

회의를 통해 심각한 이명 증상을 호소, 정신과적 질환이 의심되는 문제는 보건소 방문간호사 선생님께서 가정방문 후 몇 가지 평가 결과를 통해 정신건강증진센터로 추가적인 연계를 하기로 결정했다. 자신의 병을 인정하지 않고 있고, 정신과 치료에 대한 강한 불신과 거부감을 보이고 있으나 라포 형성으로 적극적인 설득이 필요한 부분이다.

다음은 식사해결에 대한 문제다. 미혼으로 부양의무자도 없고 주변에 가깝게 지내는 지인분도 없는 것으로 보인다. 집 앞 슈퍼 주인분이 가끔씩 라면 등을 지원해 주시면, 작은 휴대용 가스렌지로 라면을 끓여 근근이 식사를 해결하신 모양이었다. 현재 생계비가 나오지 않으니 급한 대로 주민센터에 후원 들어와 있는 백미를 지원할 생각이다. 그리고 밑반찬은 신내종합사회복지관 사례관리팀에서 지원을 해주하기로 했다. 음식이 상하지 않게 보관할 수 있는 냉장고는 동 행복나누리협의회 기금 지원으로 구입하고 전달하였다. 우선 시급한 문제였던 정신과적 치료와 식사 해결은 첫 단추를 채운 셈이다.

다음으로는 지속적인 자활사업 참여에 대한 문제다. 이 분은 자활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분이 아니다. 이 분이 안전하게(?) 기초생활수급자로 생계주거급여 지원을 받기 위해선 근로능력평가용 진단서 제출을 통해 근로활동이 어려운 분임을 심사 받아야 한다. 그러기 위해선 앞으로 꾸준히 병원치료를 받으셔야 한다. 사람과 병원, 사회에 대한 불신으로 아무도 접근 할 수 없도록 본인의 팔을 휘젓고 계신 이분에게 다가갈 수 있는 방법은 접촉의 ‘횟수’와 관심의 ‘깊이’ 였고 시간이 필요했다.

■ 1cm 좁아진 거리

그리고 몇 개월의 시간이 지났다. 정신건강증진센터의 도움으로 1개월간의 입원치료를 거쳐 지금은 본인이 혼자서 외래진료를 다니신다. 전화를 드릴 때마다 병원 예약일이 언제냐고 여쭙보면 잠시의 머뭇거림도 없이 대답하신다. 잘 기억하고 계셔서 감사하다.

움츠렸던 어깨에 희망의 날개를

허리디스크 및 만성질환으로 근로를 할수 없어 경제적 위기상황에 있던 강명자님은 월세체납으로 한겨울에 당장 쫓겨날 위험에 있었으나, 삶의 의지를 가지고 현재는 요양보호사자격증을 취득후 요양보호사로 열심히 일하고 있음.

신내종합사회복지관 | 이 승 환

■ 많은 만남 중에서..

연말에 발생하는 다양한 위기상황으로 인해 정신없이 바쁜 날을 보내고 있었을 무렵 중랑구 상봉동의 다세대 주택에서 살고 있는 강명자(가명)님을 만난 건 날씨가 제법 쌀쌀해지는 10월말 즈음이었다. 만성질환으로 인한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중랑구청 희망복지지원단에 의해 2014년 10월 경 처음 발견되었다. 이후 희망복지지원단에서 연락을 받고 방문한 곳은 어느 다세대 주택들이 몰려 있는 골목. 거기서도 맨 끝집의 단칸방의 차가운 방에서 강명자님과 상담을 진행하였다.

강명자님은 한부모 가정의 가장으로 딸과 함께 살고 있으면서 생계를 책임지고 있었으나 당뇨와 고혈압, 허리디스크 협착으로 인한 심한 통증으로 근로를 하지 못한 지 2년 가까이 되었으며, 이로 인해 중학교3학년의 딸과 살고 있는 집의 월세가 1년이상 체납되어 집주인으로부터 퇴거요청을 받은 상태였다. 또한 근로를 하지 못해 기본적인 의식주 생활도 위협을 받고 있었으며 가끔씩 교회에서 주는 쌀 등의 후원품으로 하루 1끼정도 해결한다고 하였다. 딸은 학교에서 먹는 급식으로 식사를 해결하였으나 기본적인 딸의 학업지원도 하기 벅찬 상황이었다.

구청에서도 지원을 하기위해 여러 가지 방법을 찾아보았으나 강명자님의 딸이 4살 무렵 가출한 전남편과의 이혼절차가 마무리되지 않은 채 연락이 두절된 상태였으며, 강명자님이 모르는 전남편의 자녀까지 있어, 공적인 지원을 받기까지는 까다로운 절차와 시간이 필요한 상황이었다. 허리가 아파 펴지도 못하고 말씀을 이어가는 강명자님과 상의 후 현재 위기상황을 하나씩 해결하기로 약속하고 가장 급한 주거문제부터 해결하기로 하였다.

가정방문을 갔다. 양해를 구하고 냉장고 안을 살짝 열어보고 깜짝 놀랐다. 반찬통에 복지관에서 보내주시는 밑반찬 등을 참으로 예쁘고 가지런하게 정리정돈을 해주셨다. 식사는 잘 하시냐고 여쭙보니, “여기 반찬하고 먹었다”고 정확하게 말씀하신다. 그것도 감사하다. 이제는 내가 전화를 드리면 꼭 받으시고, 혹시라도 받지 못하셨을 때는 내게 꼭 다시 전화하신다. 그리고 내가 방문을 가면 한번 웃으신다.

깜깜했던 방안의 불을 켜시고 손님처럼 맞아주신다. 생계급여를 훑쳐가는 불신의 대상에서 이제 나는 ‘손님’이다. ‘손님’이 된 나는, 지금 이것 또한 감사하다.

■ 그리고 지금처럼만

어느 날 갑자기 기적처럼 모든 상황이 변한 건 아니다. 10년, 20년이 지난 후에도 이 분은 여전히 기초생활수급자로 생계주거급여를 받고 계실 것이다. 그리고 여전히 사회와는 고립된 채 본인만의 외로운 세상에서 외로움도 모른 채 살고 계실게다. 그 세상을 평온하게 유지시켜 줄 정신과 약도 복용중이시겠지.

딱 한 가지 아주 작은 변화가 있다면, 한 번씩 멍쩍은 듯이 보이는 ‘웃음’. 나를 향한 전에 없던 조금 편안해진 ‘웃음’. 어쩌면 본인은 알지도 못할 아주 작은 변화에 나는 모든 기대를 걸고 오늘도 전화한다. 약은 잘 드셨냐고, 식사는 하셨냐고... “잘 먹고 있다”고 수화기 너머 들려오는 대답.洞주민센터 사회복지 담당에게 ‘그거’ 면 됐다.

우선 복지관으로 돌아와 사례관리팀 회의를 통해 다양한 지원방법에 대한 논의를 하였으며, 우선 현재 가장 긴급한 월세체납을 지원하기 위해 한국사회복지관협회의 위기가정지원사업에 신청해 보기로 하였다. 위기가정지원사업의 대상자 기준 중에서 주거비 체납과 퇴거위기상황이 심각하다고 판단하여 사례판정회의를 통해 심사대상자로 신청하였다. 정확히 일주일 후 한국사회복지관협회로부터 주거비로 총200만원의 위기가정지원사업 지원금을 지원 받을 수 있었고 동절기가 시작되는 11월에 월세를 내지 못해 쫓겨날 뻔 했던 강명자님의 가족은 주거비를 지원받아 6-7개월의 체납월세를 해결할 수 있었다. 그전까지 계속 집을 비워달라던 집주인에게도 강명자님의 사정을 말씀드리자 그러면 나머지 체납월세는 상황이 나아지면 갚을 수 있도록 해 주었다.

주거문제가 일단 해결되었으나 당장 1년 이상 근로를 하지 못해 생계가 막막하였습니다. 몸도 좋지 않으나 우울감으로 인해 사회성이 떨어지고 예전에 일을하다 일을 잘 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일을 그만 둔 적이 있어 자신감이 결여된 상태였다.

사례관리 기간 중 강명자님은 작년에 지역교회에서 무료건강검진을 받았는데 갑상선에 종양이 의심되어 한시라도 빨리 병원에서 검사를 받아야 한다는 이야기를 들었다며 걱정하였다. 이에 허리통증과 당뇨 및 고혈압등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강명자님의 정확한 건강상태를 알아보기 위해 서울시북부병원에 의료서비스를 의뢰하여 검진을 받을 수 있었다.

검진 중 갑상선에 종양이 발견되었으며 정확한 검사를 위해 외부기관에 연계가 필요한 상황이었으며 서울의료원에 연계되었다. 의료비는 서울시북부병원에서 지원해 주기로 하고 나머지는 본 복지관에서 진행하고 있는 희망온돌 위기긴급지원사업의 의료비지원을 받아 검사를 받을 수 있었다.

최종 갑상선에 종양이 16개정도 발견되었으나 양성이라는 판정을 받았고 안도할 수 있었다. 1년후 관리를 위해 재검진을 받아야 하나 문제는 없다고 하였으며, 이후 서울시북부병원에서 허리디스크 검사와 진료를 통해 현재는 어느 정도 건강도 회복이 되었다.

■ 자연스럽게 강점발견하기

주거와 건강에 대한 문제가 어느 정도 해결되자 강명자님의 자존감이 높아지며 이제까지 보이지 않던 강점들이 하나둘씩 생겨나기 시작하였다.

후원품 지원 및 희망온돌 디딤돌 물품지원연계를 통해 주기적으로 상담 및 사례관리가 지속적으로 이뤄지는 가운데 강명자님은 저에게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따서 생계를 꾸리고 또 노인분들에게 봉사를 하고 싶다는 말씀을 하였다. “요양보호사 공부 열심히 하고 있어요”라는 소식을 들은 지 두달쯤 지나 정말로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취득하였으며, 현재는 요양보호사로 활동하고 있다.

강명자님은 근로를 통해 적지만 스스로 돈을 벌어 생계를 책임질 수 있다는게 제일 기뻐다고 말하였다. 올해 고등학교 1학년이 된 딸이 변변한 참고서도 없이 이번 시험에서 전교1등을 했고, 앞으로는 계속 좋은 일만 생길 것 같다며, 현재도 월세를 내고나면 생활을 하기가 빠듯하지만 열심히 하면 언젠가는 더 좋은 날이 올 것 이라는 희망이 생겼다고 하였다.

■ 진정한 사례관리란....

사례관리를 진행하면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대상자분들의 강점이 훨씬 많다는 것을 느꼈고, 아울러 사례관리를 한다고 하여 그분의 삶의 급격한 변화와 향상을 기대하는 것 보다는 그분의 삶의 방식을 인정하고 조용히 지지해 주는 것이 훨씬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앞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겠지만 지금처럼 잘 해 나갈 수 있을 것을 믿으며, 응원하고 있다.

중랑구 거주 네팔지진피해자가족 지원을 위한 긴급모금활동

네팔대지진! 중랑구 거주 네팔지진 피해자가족지원을 위한
'사랑나눔바자회 및 긴급모금활동' 개최

중랑구다문화가족지원센터 | 담당자 : 배 지 숙

■ 네팔대지진

- 발생일시 : 2015. 4. 25(토), 12시 경(현지시간 기준)
- 발생장소 : 네팔 카트만두, 포카라(방글라데시, 중국, 인도 등 접경지역)
- 피해원인 : 7.9도 규모 지진 발생

네팔 대지진 발생이후 중랑구 거주 네팔대지진 피해자 가족현황을 확인한 결과 네팔다문화가족 총 6명이 본 센터를 이용하고 있었다.

네팔 피해현황 확인 결과 6명중 3명이 네팔 카트만두 현지집이 모두 무너져 피난민 텐트에서 생활하고 있고, 의식주 모두 어려운 상황으로 확인되었다. 이에 중랑구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는 이들을 돕기위한 구호활동을 펼치기로 하였다.

■ 구호활동

- 산타쿠마리씨 : 카트만두 외곽에 지진으로 집이 모두 무너져 내려서, 부모님 남동생, 여동생이 피난처 텐트에서 지내고 있으며, 2015.5.11.현재까지 여진이 계속되고 있어 불안합니다. 구호물품은 전달되지 않고 있어 잠자리와 먹을 음식과 식수가 많이 부족합니다.....
- 커멀라칸트씨 : 카트만두에 집이 지진으로 모두 무너졌어요. 아버님(76), 어머님(65), 남동생 부부와 조카가 피난처 텐트에서 지내다가 지금은 친척집에서 모두 도움을 받고 있지만, 먹을 음식과 식수 모두 부족하고 어렵습니다.....
- 봄은영씨 : 카트만두집이 지진으로 모두 무너졌어요. 아버님(70), 어머님(67), 남동생 부부조

카가 피난처 텐트에서 생활하고 있으며, 구호물품은 전달되지 않고 있어, 음식과 식수가 매우 부족하고, 주위 전염병도 발생하고 있어 많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국땅 결혼을 통해 가족을 이루고 자녀들과 함께 한국에 뿌리를 내렸으나 고국의 안타까운 상황에 그들은 매우 불안해 하였다. 각 가정별 현지의 피해상황을 파악한 이후, 사례회의를 통해 중랑구 거주 네팔대지진 피해자가족 지원을 위한 “사랑나눔 바자회 및 긴급모금” 사업진행을 확정 하였다. 중랑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이용하는 다양한 국적의 사람들이 이들을 돕기 위한 다양한 활동에 적극 동참하였다.

2015. 5. 5. ~ 2015. 5. 31.까지 긴급후원모금액 100%목표달성을 위해 온·오프라인 모금활동을 동시 진행하였으며, 사랑나눔바자회와 중랑천 다문화 축제 진행시 베트남커피와 바오응안 차, 아동복, 신발등을 판매 하였다.



허리펴고 기지개 쫓~!!

경제적 어려움과 알코올중독 아들로 인해 몸과 마음이 많이 지쳐있던 손 어르신!!
사례관리자로서 공감과 지지만 해드렸을 뿐, 결국 가족들의 응원으로 조금씩 앞으로 전진!

면목종합사회복지관 | 김 정 연

■ 수줍은 노크

작년 겨울 즈음, 어르신 한 분이 잔뜩 긴장한 모습으로 조심스레 찾아오셨다.

“저.....기.....” 선뜻 먼저 말씀을 꺼내지 못하시는 것 같았고, 조심스레 상담실로 모셔 이야기를 나누었다. 지금까지 누구에게 도움을 요청하고, 받아본 경험이 없었기 때문에 더 머뭇거리셨던 것 같다. 주민센터에 갔다가 복지관을 소개해주어 방문하게 되었다고 하셨다.

어르신이 다소 긴장한 모습으로 계셔서 긴장이 풀릴 수 있도록 조금 기다려드렸다. 잠시 후, “도움을 받을...수 있을까 해서...” 어르신은 힘겹게 말씀을 꺼내셨고, 어떤 도움이 필요하신지에 대해 이야기를 이어나갔다.

어르신은 남편과 아들, 손녀와 함께 생활하고 있다. 70세가 넘었지만 집에서는 어르신만 일을 하고 있어 실질적인 가장으로서 역할을 하고 있었다. 남편은 80대 고령이라 일을 할 수 없는 상황이었고, 목에 염증까지 발병해 건강이 좋지 않았다. 아들은 외출도 하지 않은 채 몇 년 동안 집에서만 생활하고 있고, 손녀는 고등학교 3학년, 학생이었다. 어르신은 건물청소 일을 해서 한달에 70만원을 벌었고, 4인 가족이 생활하는데 턱없이 부족한 금액이라 어려움이 많았다. 게다가 남편의 목에 생긴 염증이 심해져 월급의 대부분을 병원비로 사용해 생활비가 부족한 상황이었다. 내부 회의를 통해 우선 희망온돌 사업으로 생계비를 지원해드렸다.

70세가 넘으셨지만 가정을 책임져야하기에 힘겹게 생활하시는 어르신을 지지해드리고 싶은 마음에 정기적인 만남을 제안했다. 어르신은 고마움을 표현하시며, 힘들 때마다 찾아와 이야기를 나누고 싶다고 하였고, 그 때부터 어르신과의 본격적인 만남이 시작되었다.

모금액은 개인 및 단체 면목3.8동주민센터, 대한불교조계종 한성사, 건강보험공단 중랑지사 포함하여 많은 분들의 관심과 참여해주신 덕분에 모금목표액을 100% 달성할 수 있었다.

모금된 긴급후원금은 커멀라칸트씨, 봄은영씨, 산타쿠마리씨에게 개인별 일백만원씩 2015. 6. 12.(금) 본센터에서 대한불교조계종 한성사 주지 범농스님의 덕담과 함께 빠른 피해복구비용에 사용할 수 있도록 전달식이 진행되었다.



사랑나눔바자회 및 긴급모금 전달식

■ 위기사례관리담당으로서

네팔 대지진 발생이후 중랑구 거주 네팔대지진 피해자 가족의 집이 무너져 내려 친척집과 임시 피난민 텐트에서 생활하고 있었으며, 의식주 모두 매우 부족하고, 외국의 후원물품은 제대로 공급되지 않는 상황에서 물가는 폭등하였다.

대지진이 일어나고 나서도 여진은 아직까지도 조금씩 계속 이어지며, 전기는 일부 제한적으로 들어오고 있다고 한다.

지원된 후원금으로 무너진 집을 복구하고 필요한 생필품을 마련하는데 쓰여졌다는 메시지를 받았다. 시집은 나라, 가족을 이루어 살고는 있으나 낯설었던 나라가 이제 내나라가 되었다며 거듭 감사함을 표했던 세분을 보며, ‘지구촌’ ‘다문화’라는 단어가 살아 움직이는 것을 확인 할 수 있었다.

그동안 바쁘게 진행되었던 「사랑나눔 바자회 및 긴급모금활동」에 후원과 참여해주신 모든 분들께 다시금 감사의 말씀을 전하고 싶다.

■ 손 어르신의 힘겨운 싸움

한 번 두 번, 손 어르신을 만나며 이야기를 나누었다. 담당자와 신뢰관계가 생기면서 처음에 풀 어놓지 못했던 이야기를 꺼내셨다. 누구한테 내비치고 싶지 않았던 아들의 알코올중독과 그로 인한 가족들의 힘겨운 싸움, 매일 밤낮동안 빈속에 술을 마시고 가족들에게 폭언을 하다 보니 주변 이웃들에게도 시끄럽다는 민원이 들어오고, 시간이 갈수록 어르신과 가족들의 상처는 더해갔다. 아들로 인한 고민을 담당자로서 도울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것이 참 어려웠다. 더군다나 복지관을 오가며 도움을 받는다는 것을 아들이 아는 것도 비밀로 해야 하기 때문에 아들을 만날 수도 없는 상황이었다. 그저 어르신이 궁금해 하시는 정보를 알아봐드리고, 이야기를 들어드리면서 공감과 지지해드리는 것뿐이었다.

손 어르신을 만나 이야기를 하면서 아들에게 힘을 받았던 점, 아들로 인해 기뻐던 일, 그래도 아들이 있기 때문에 힘이 된 점 등을 자주 나누었다. 그리고 어르신은 아들을 달리 바라보며 대하려고 노력하셨다.

새벽부터 일어나 건물청소를 하고 퇴근 후에 집으로 돌아와 남편을 간병하고 아들을 상대하기란 참 버거운 일이다. 그래도 다행인 것은 손녀딸이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에 갈 형편이 안 되는 걸 알기에 바로 취업할 생각을 하고 있었다. 취업 준비를 위해 학원을 다니고 있어 결연후원을 연계하여 학원비라도 보탬 수 있도록 했다. 그리고 간간히 주·부식을 지원해드렸다.

“할머니, 조금만 더 고생해.. 내가 취업하면 할머니 많이 도와줄게...”, “할머니 괜찮아? 내가 옆에 있잖아...”라고 어르신에게 항상 힘이 되었다. 어르신 옆에 누군가 있다는 게 참 안심이었다. 손녀딸도 만나 함께 이야기를 나누었다. 의젓하게 현재 상황을 받아드리면서 가족들에게 도움이 되고 싶다는 담당자에게도 힘을 주었다. 어르신과 손녀딸과의 관계를 더 돈독히 해드리고자 식사시간을 마련해드리고 싶었다. 서로 너무 바쁜 일상이기에 가족들끼리 정을 나누고, 함께 지지받을 수 있는 시간이 필요했다. 외부 후원을 통해 외식할 수 있는 기금을 지원받았고, 모처럼 가족끼리 밖에서 식사를 할 수 있었다. 서로를 이해하고 가까워질 수 있는 시간이었다.

반면, 시간이 지날수록 남편의 건강이 악화되고 있었다. 목의 염증으로만 알았던 증상이 후두암이라는 진단으로 내려졌고, 수술과 입원으로 병원비가 많이 나왔다. 건강보험공단을 통해 암 수술에 대한 의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어르신과 서류를 함께 준비했다. 그 과정에서 어렵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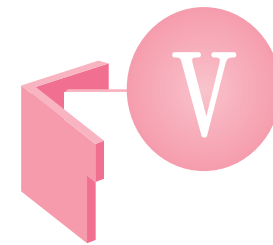
아들과 통화하여 추가로 필요한 서류를 안내했고, 의외로 많은 협조를 받을 수 있었다. 아들도 가족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구나 라는 생각도 들었다. 그래서 더 아들에 대한 긍정적인 점을 어르신과 나눌 수 있었다. 손 어르신은 일을 해야 했기 때문에 낮 동안에는 아들이 남편을 간병했고, 저녁에는 어르신이 간병을 했다. 아들이 간병을 한다는 것이 정말 놀라웠다.

가족들의 노력이 있었지만 결국 남편은 올 초에 사망하였다. 남편 사망 후 정신없이 하루를 보냈던 어르신에게 다시 위기가 왔다. 매일 술로 지내던 아들이 정신을 잃고 쓰러져 응급실에 가게 된 것이다. 오늘을 넘기기 힘들겠다는 의사의 통보에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다고 한다. 속을 썩이는 아들이었지만, 존재만으로도 의지가 되었기 때문이다. 매일 손녀딸과 번갈아가며 간병을 하면서 밤을 지새웠고, 다행히 의식을 회복하여 퇴원할 수 있게 되었다.

■ 이제는 허리펴고 기지개 켜!

남편의 사망과 아들의 중환자실 입원으로 정신없이 하루를 보냈다. 어르신은 그래도 한시름 놓았다고 다행이라 여긴다. 여전히 손 어르신과 손녀딸은 서로 의지하면서 지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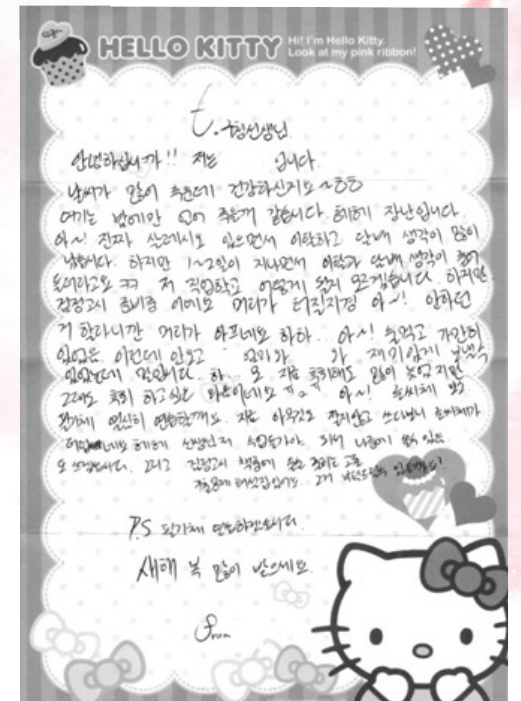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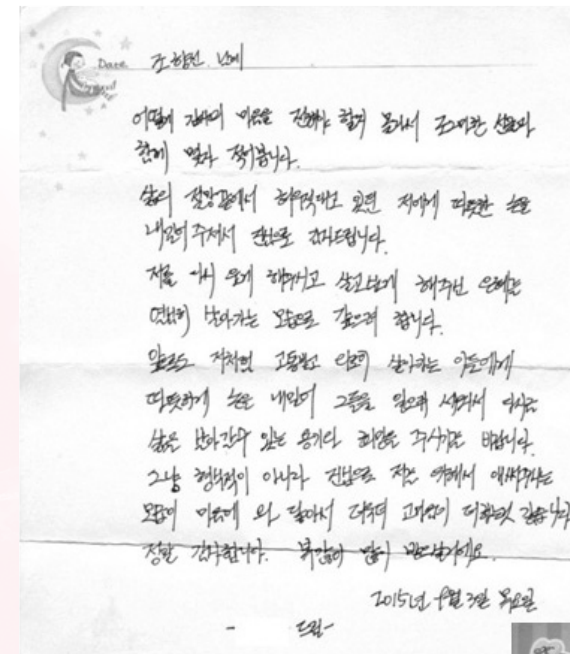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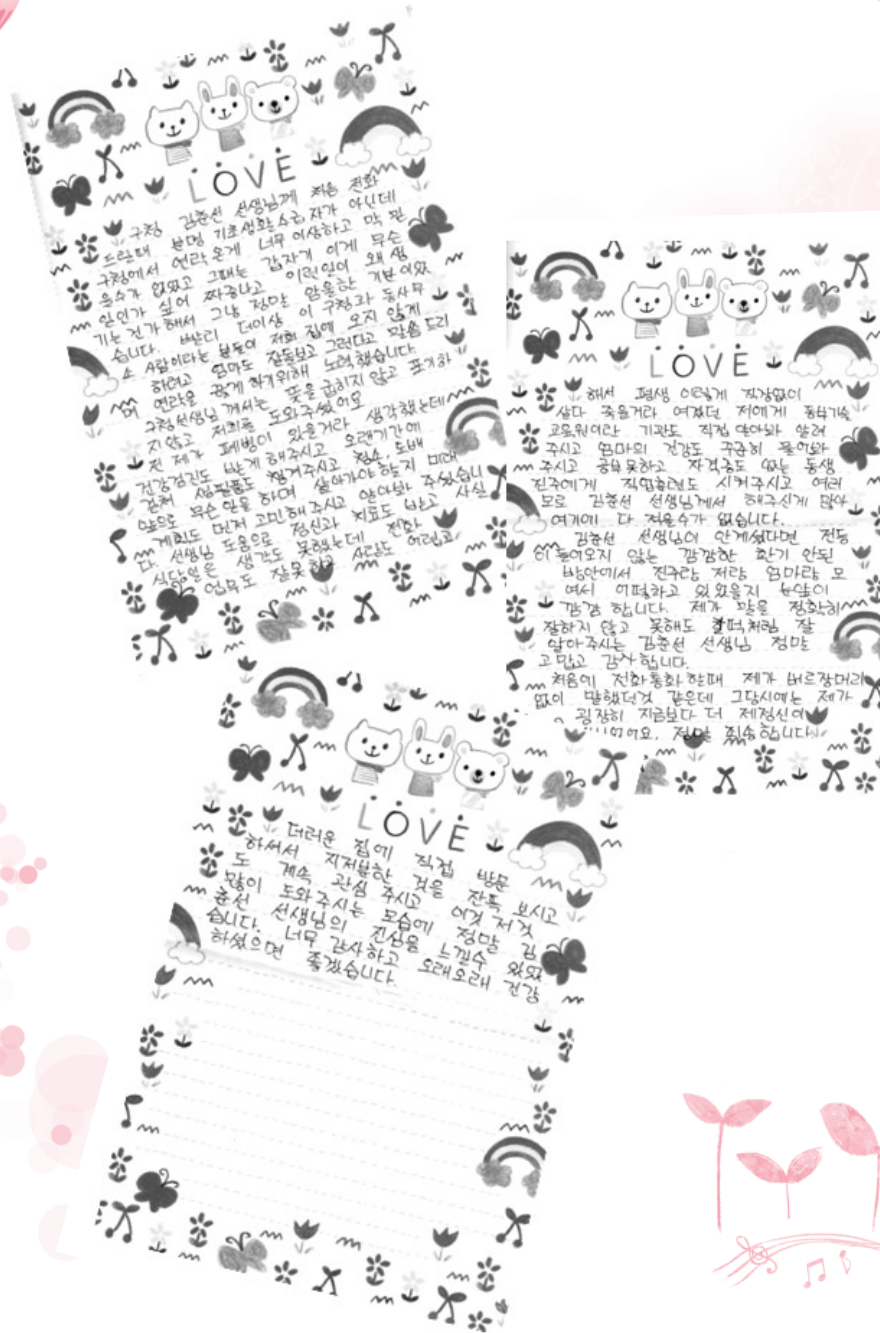
손녀딸이 고등학교 졸업 후 최근에 취업을 했다고 기뻐했는지 자랑하시려고 방문하셨다. 모처럼 웃음을 머금은 어르신의 모습을 보니 덩달아 미소가 지어졌다. 여전히 아들은 술을 마시고 있지만, 어르신은 아들의 좋은 점을 보려 노력하시고, 손녀딸의 지지로 힘을 받고 있었다. 당신도 힘겨움이 있었지만, 항상 가족들을 위해 꺾 참고 버티셨던 어르신이 존경스러웠다. 어르신은 담당자를 통해 가족들을 다시 보게 되었다고 하신다. 이렇게 가족이 서로에게 감사와 지지를 보내며 어려움을 극복해 나가실 것이라고 믿는다.



희망의 메아리

『희망의 메아리』는 비자발적인 대상자의 작은 변화, 감사의 표현 하나가 주는 기쁨의 순간을 공유하고자 마련한 공간입니다.





맞춤형 복지 안내

맞춤형 기초생활보장제도 지원대상

소득인정액 기준과 부양의무자 기준 동시 충족

*교육급여는 부양의무자 기준 없음

01. 소득인정액 기준 소득인정액이 급여별 선정기준 이하

소득인정액 = 소득과 재산을 소득으로 평가·환산한 금액

구분	선정 기준	기준액 (원)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6인 가구	7인 가구
생계	중위소득 28% 이하*	437,454	744,855	963,582	1,182,309	1,401,037	1,619,764	1,838,491
의료	중위소득 40% 이하	624,935	1,064,078	1,376,546	1,689,013	2,001,481	2,313,948	2,626,416
주거	중위소득 43% 이하	671,805	1,143,884	1,479,787	1,815,689	2,151,592	2,487,494	2,823,397
교육	중위소득 50% 이하	781,169	1,330,098	1,720,682	2,111,267	2,501,851	2,892,435	3,283,020

* 생계급여의 경우, 2017년까지 단계적으로 중위소득 30% 수준으로 인상할 예정입니다.

예시 소득인정액이 70만원인 2인 가구의 경우, 생계, 의료, 주거급여 대상이 됩니다.

중위소득이란? 전국의 모든 가구를 소득별로 순위를 매겼을 때, 한가운데 위치하는 가구의 소득을 말합니다.

02. 부양의무자 기준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

부양의무자의 범위

수급권자의 1촌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
(다만, 배우자가 사망한 경우 사위·며느리·계부·계모는 제외)



“급여 항목별 체계적인 지원을 통해”

생계급여

일상생활에 기본적으로 필요한 생계비를 지원해 드립니다.



생계급여는 현금으로 지원되며 가구별 생계급여 선정기준액에서 소득인정액을 뺀 금액을 지원합니다.

예시

소득인정액이 60만원인 4인가구의 경우 생계급여 선정기준인 1,182,309원에서 60만원을 뺀 582,310원을 지원하게 됩니다.

의료급여

질병, 부상, 출산 등의 상황에서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낮은 본인부담으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의료급여 본인부담금 수준

		1차 (의원)	2차 (병원)	3차 (지정병원)	약국
1종	입원	없음	없음	없음	-
	외래	1,000원	1,500원	2,000원	500원
2종	입원	10%	10%	10%	-
	외래	1,000원	15%	15%	500원

*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의료서비스에 한함

1종 근로무능력가구, 희귀난치성·중증질환 등록자, 시설수급자
2종 기초생활보장제도에 따른 의료급여수급자 중 1종 수급대상이 아닌 가구

생계·의료급여 관련 상세 문의는 보건복지콜센터 129

“더! 많은 분들에게 꼭! 필요한 도움을 드립니다.”

주거급여

임차가구는 전월세 비용을 지원하고,
자가가구는 낮은 집을 고쳐드립니다.

임차가구

지역 및 가족 수에 따라 산정한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실제 전월세비용(월임차료+보증금 환산액)을 지원합니다.

기준임대료

(단위 : 만원)

	1급지 (서울)	2급지 (경기/인천)	3급지 (광역시/세종)	4급지 (그 외)
1인 가구	19	17	14	13
2인 가구	22	19	15	14
3인 가구	26	23	18	17
4인 가구	30	27	21	19

자가가구

주택의 노후도에 따라 도배, 난방, 지붕 등 종합적인 수리를 지원합니다.

주택 개량
지원 내용

	경보수	중보수	대보수
수선비용	350만원	650만원	950만원
수선주기	3년	5년	7년
수선예시	도배, 장판 등	오·급수, 난방 등	지붕, 기둥 등

주거급여 관련 상세 문의는 **주거급여콜센터 1600-0777**

교육급여

아이들이 열심히 공부할 수 있도록

입학금·수업료·학용품비 등을 지원합니다.

교육급여

지원 내용

지급대상	급여항목	지급금액	지급방법
초/중학생	부교재비	1명당 38,700원	연 1회 지급
중/고등학생	학용품비	1명당 52,600원	1,2학기 분할 지급
	교과서대	1명당 129,500원	연 1회 지급
고등학생	수업료	연도별·급지별 학교장이 고지한 금액 전부	분기별(3·6·9·12월) 지급
	입학금		1학년 제1분기에 신청 시 전액 지급

교육급여 관련 상세 문의는 **교육급여콜센터 1544-9654** (6월말 개통예정)

기초생활보장제도가 ‘맞춤형’으로 개편되면

01

소득이 늘어나도 걱정하지 마세요.

선정 기준을 다층화(생계·의료·주거·교육)하여
소득이 일부 증가하더라도 필요한 도움은 계속 지원합니다.

02

가족의 부양부담을 덜어 드립니다.

부양의무자 기준을 대폭 완화하여 형편이 어려워도
가족으로부터 부양을 받기 어려운 분들을 더 많이 지원합니다.

03

기존 받으시던 도움은 계속 됩니다.

기존 수급자 분들의 소득·재산 등이 변하지 않으면
지금 받고 계신 혜택은 그대로 보장합니다.

맞춤형 기초생활보장제도는

스스로 생활을 감당하기 어려운 분들에 대해서는
정부가 책임지고 기초생활을 보장할 뿐 아니라,
일할 능력이 있는 분들은 일을 통해서 일어설 수 있도록
소득이 올라가더라도 필요한 급여는 계속 지원하게 됩니다.

긴급복지지원 안내

지원대상

위기 상황과 소득·재산 기준을 충족하는 자

■ 6가지 위기사유

- ① 주소득자의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 등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 ②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 ③ 가구구성원으로부터 방임 또는 유기되거나 학대 등을 당한 경우
- ④ 가구구성원으로부터 가정폭력 또는 성폭력을 당한 경우
- ⑤ 화재 등으로 인하여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한 경우
- ⑥ 보건복지부령에 따라 지자체 조례로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 ⑦ 그 밖에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로서
 - 이혼의 사유로 소득 상실 • 단전되어 1개월이 경과된 때 • 주소득자의 휴·폐업, 실직으로 생계가 곤란할 때 • 출소한지 6개월 이내
 - 6개월 미만의 초기 노숙의 경우 • 이 법 취지에 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지역상황을 고려하여 지자체장이 인정하는 경우

■ 소득·재산기준

- 소 득 : 4인기준 308만원 이하
- 재 산 : 대도시(13,500만), 중소도시(8,500만), 농어촌(7,250만원 이하)
- 금융재산 : 500만원 이하 (단, 주거지원 700만원 이하)

지원내역

생계·의료·주거·사회복지시설·교육지원 및 그 밖의 지원 (연료비·해산비·장제비·전기요금)

종류			지 원 내 용	지원금액	최대횟수
금 전 · 현 물 지 원	위기상황 주급여	생계	• 식료품비, 의복비 등 생계유지에 필요한 비용 또는 현물	1인 40만원 4인 110만원	6회
		의료	• 각종 검사, 치료 등 의료서비스 지원 - 본인부담금 및 일부 비급여 항목	300만원 이내	2회
		주거	• 국가·지자체 소유 임시거소 제공 또는 타인 소유의 임시거소 제공 - 제공자에게 거소사용 비용 지원	60만원 (대도시, 4인기준)	12회
		복지시설 이용	• 사회복지시설 입소 또는 이용서비스 제공 - 시설운영자에게 입소 또는 이용비용 지급	137만원 (4인 기준)	6회
	부가 급여	교육	• 초·중·고등학생 중 수업료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학비 지원	초 20.9만원, 중 33.3만원, 고 40.8만원 및 수업료·입학금	2회 (‘15. 7. 1. 이후 최대4회)
		그 밖의 지원	• 위기사유 발생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자에게 지원 - 동절기(10월~3월) 연료비: 90,800/월 - 해산비(60만원)·장제비(75만원)·전기요금(50만원 이내): 각 1회		1회 (연료비 6회)

민간기관·단체 연계 지원

지 원 내 용	최대횟수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대한적십자사 등 민간의 긴급지원 프로그램으로 설계	횟수제한 없음
상담 등 기타 지원	

위험할 땐 **119**, 힘들 땐 **129**
실제 도움 필요 시 24시간 365일 24시간 보건복지 콜센터

복지포털 **복지ir**
 www.bokjiro.go.kr

읍·면·동 주민센터로 신청하세요!

지원절차

01 상담 및 신청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신청 시기 2015년 6월 1일부터
02 사실조사 및 심사	가구 소득·재산 등 조사
03 급여결정, 통지	30일 이내 통지 (60일 이내 연장가능)
04 급여실시	결정된 급여 지급
	지급 시기 2015년 7월 20일부터 (교육급여의 경우, 9월부터 지급 예정)

※ 신청에는 비용이 들지 않습니다. 금품을 요구하며 접근하는 경우 절대 응하지 마십시오.

문의

보건복지부 콜센터 129
 주거급여 콜센터 1600-0777
 교육급여 콜센터 1544-9654 (6월말 개통예정)

기존 기초생활보장을 받으셨던 분들은
 별도로 맞춤형 기초생활보장제도를 신청하실 필요가 없으며
신규로 급여를 받으실 분만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맞춤형
기초생활보장

더! 많은 분들에게 꼭! 필요한 도움을
 7월 기초생활보장제도가 맞춤형으로 새로워집니다.

보건복지부

국민고향방

교육부



중랑구 사회복지협의체 사례관리분과 소개

1) 사례관리분과 구성 취지

중랑구 민·관 사례지원 기관들이 함께 통합사례 지원을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 대상자 중심에 서비스자원의 통합적 제공 기반 마련을 함으로써 서비스 전달체계를 구축 하고자 함.

2) 사례관리분과 운영목표

- (1) 민·관 사례지원기관의 권역별 협업을 통한 대상자 사각지대 해소
- (2) 민·관 사례지원기관의 네트워크 강화를 통한 사례개입의 효율성 및 효과성 증대
- (3) 민·관 사례지원기관의 재교육 강화를 통한 통합사례관리의 전문성 강화

3) 사례관리분과 운영 현황

시 기	내 용
2011. 9.	〈 분과구성 〉 - 분과장 오순희(서울시립대학교종합사회복지관) - 지역사회복지협의체 7번째 실무분과로 구성/ 총 18개 기관
	~ 중 략 ~
2014. 3. ~ 4.	〈 민·관 네트워크 체계 강화 〉 - 통합사례관리를 위한 민·관네트워크 확대 실시 (총 4회) / 거점기관 중심 - 제3기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을 위한 TF팀 참여 및 수립
2014. 3. ~ 5.	〈 실무자교육특화 - 정신건강심화교육 I 〉 - 우울의 이해(원인, 증상, 치료법) 3회 / 조은정 과장(서울시 북부병원)
2014. 9. ~ 11.	〈 실무자교육특화 - 정신건강심화교육 II 〉 - 알콜 의존의 이해(원인 증상, 치료법) 3회 / 하라연 과장(서울시 북부병원)
2015. 3.	〈 민·관 네트워크 체계 강화 〉 - 통합사례관리를 위한 거점기관 회의 실시 (총 2회) / 서비스지원기관 확대 : 보건의료사업으로 영역 확대
2015. 4. ~ 7.	〈 통합사례지원을 위한 실무자 워크숍 및 자문회의 〉 - 사회복지시설 신규직원 지역기관 견학 및 워크숍(서울북부병원 외 5곳) / 사회복지시설 3년미만 신규직원 37명 참여 / 중랑구사회복지협의회와 공동 주관 - 민·관 통합사례관리 역량강화 지원 자문회의(조현순 교수, 한국사례관리학회 부회장) - 기초생활보장제도 맞춤형 급여체계 이해(정기택 주무관, 중랑구청)

4) 사례관리분과 21개 기관

(2015. 8월 현재)

중랑구청(복지정책과), 주민센터(상봉1동주민센터), 면목종합사회복지관, 서울시립대학교종합사회복지관, 신내종합사회복지관, 유린원광종합사회복지관, 원광장애인종합복지관, 시립중랑노인종합복지관, 구립신내노인종합복지관, 중랑구치매지원센터, 중랑구건강가정지원센터, 중랑구다문화가족지원센터, 중랑구정신건강증진센터, 중랑한울지역정신건강센터, 한울사회서비스사업단, 중랑구청소년상담복지센터, 소나무상담복지센터, 중랑교육복지센터, 서울특별시북부병원, 중랑구사회복지협의회, 서울특별시 동부교육지원청

희망나눔 행복찾기

2015 중랑구 통합사례관리 활동집

발 행 일 | 2015년 11월

발 행 인 | 중랑구청

발 행 처 | 중랑구 복지정책과 희망복지지원팀
서울시 중랑구 봉화산로 179 (신내동)

문 의 | TEL. 2094-1616

편집·인쇄 | 중랑프린팅 TEL. 432-8023

이 책의 저작권은 중랑구복지정책과와 중랑구지역사회보장협의체 사례관리분과에 있습니다.
- 무단 전재와 배포를 금합니다 -